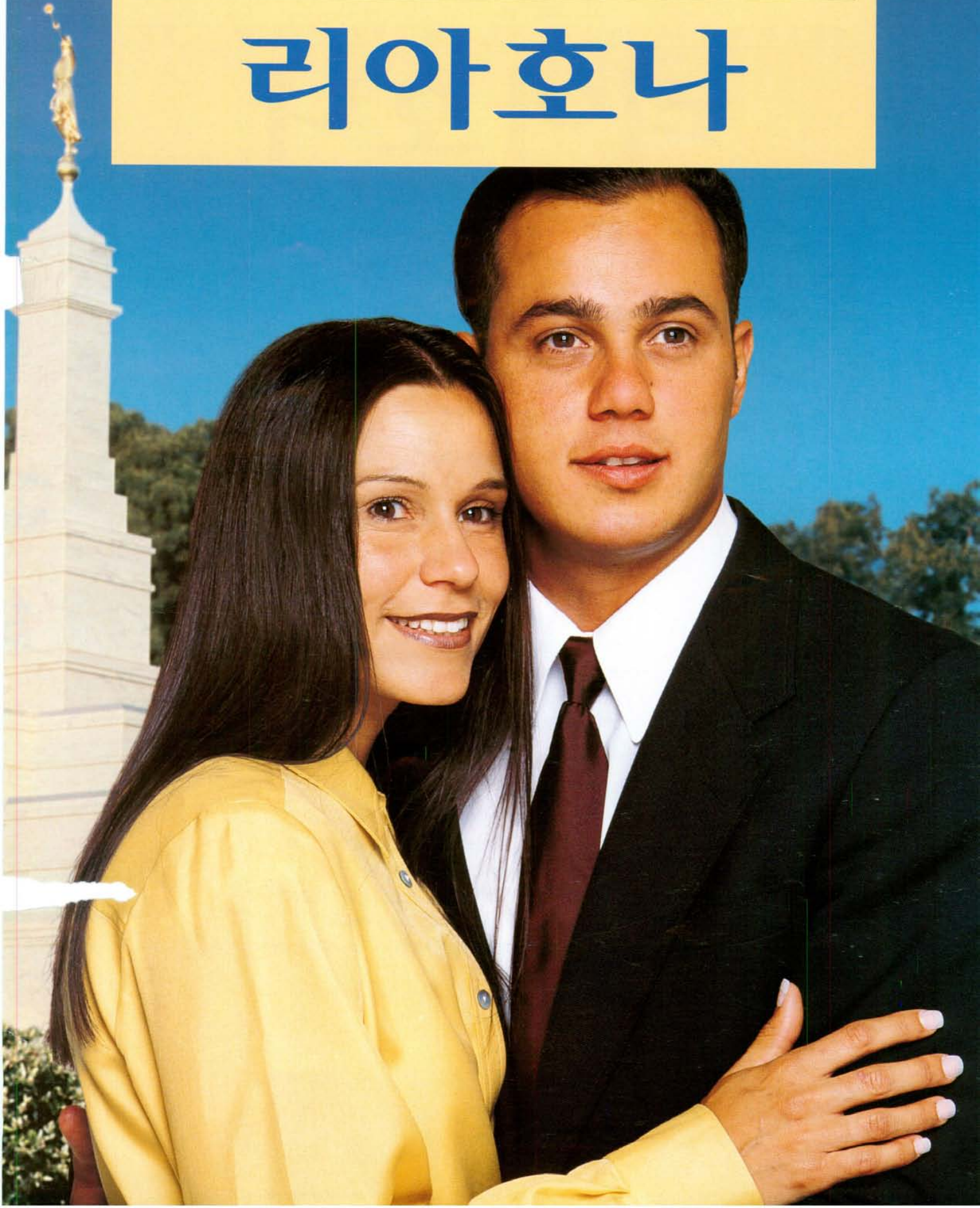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별책 부록 : 친구들 · 2001년 11월호

# 리아호나



# 리아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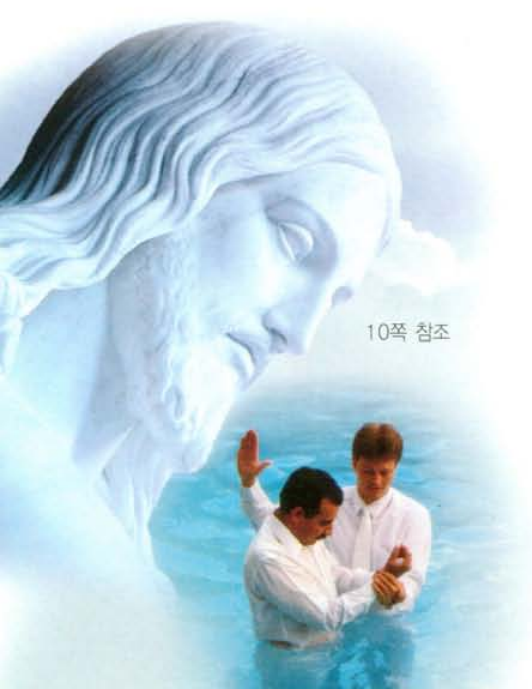
### 표지

앞: 사진 삽화, 크레이그 다이몬드  
뒤: 사진 삽화, 크레이그 다이몬드,  
제드 에이 클라크



### 친구들란 표지

규진이는 서로 친밀하고 다양한 조 형제  
가족의 일곱 자녀들 중 하나이다.  
사진 촬영: 엘빈 레빗 "한국 부산의 조광진과  
조영진", 4쪽 참조.



10쪽 참조

## 일반

- 2 외설물—치명적인 매개체 토마스 에스 몬스 부대관장
- 8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 16 의식과 성약 데니스 비 노인슈만더 장로
- 24 방문 교육 메시지: 성스러운 음악으로 가정과 삶을 축복함
- 32 케냐 출루의 개척자들 이 데일 레바론
- 39 "영이 대신 말했습니다" 질 펄시퍼 존스
- 40 말일성도의 소리: "모든 좋은 기회"  
나의 스승 호아긴 페노아르 바타에르  
숨겨진 책 루스 도르세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틀나 베아트리스 살바티에라 데 산체스  
나머지는 주님께 론디 에스 루돌프  
결혼 반지가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케 테 쿠앙
- 48 2001년도 11월호 리아호나 활용하기

## 청소년란

- 7 유혹에 맞서 대린 리스고
- 10 명예롭게 귀환하라 로버트 디 해일즈 장로
- 25 리아호나 고전: 청소년에게 보내는 인사
- 28 후임 동반자 존 엘 하우어터
- 31 나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제니 윌라드슨
- 46 방문자 켄 메릴

## 친구들란

- 2 교리와 성약 경전 이야기 뽑기 가방 콜리스 클레이튼
- 4 친구 사귀기: 조영진과 조광진, 한국, 부산 엘빈 레빗
- 7 권고 속에서 찾는 안전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 8 신약 성서 이야기: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생명의 떡
- 12 함께 나누는 시간: 예언자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 14 "선생님이 일어나도 된다고 하셨어?" 재닌 미켈슨이 실라 킨드렛에게 들려준 이야기



40쪽 참조



32쪽 참조

2쪽 참조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힐글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라셀 엠 빌슨, 앨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러드, 조셉 비 위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말린 케이 젠슨

**고문:** 제이 켄트 홀리, 더블류 톰프 카, 스티븐 에이 웨스트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차드 엠 롬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일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거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일 빌 존슨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데일리

출판 보조: 코니 세익스피어

편집 보조: 레너 제이 카터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 밴 캄펜

상임 디자이너: 새리 쿡

디자이너: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데니즈 커버, 엘리 프랭크, 로널드 에프 스파크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외너

디자인 교정 인쇄: 제프 마틴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우 부장: 크리스 크리스텐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 428호, 제 38권, 제 11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1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정동진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장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우과☎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1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리투아니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이티어, 헝가리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름함)

©2001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November 2001 No.11,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라벨”에 감사함**

리아호나(스페인어판)에 대해 매우 감사하며 2000년 9월호의 “라벨”이라는 제목의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의 대관장단 메시지에 특히 감사합니다. 또한 같은 호의 말일성도의 소리 기사 중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가리타 살메론 가리도,  
스페인 그라나다 지방부  
그라나다 지부

**동반자 그리고 도움**

리아호나(스페인어판)는 훌륭합니다. 이 잡지는 저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리아호나를 읽음으로써 저는 더 나은 딸과 아내가 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엄마가 되면 가장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잡지는 제가 어머니라는 책임을 준비하도록 도와줍니다. 계속 좋은 일을 해주세요.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이 잡지는 우리에게 동반자가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디아 이사벨 드 레자마,  
온두라스 단리 스테이크  
부에나 에스페란사 워드



**“마음의 평화를 찾음” 이란 기사가 좋았어요**

저는 2000년 6월호 리아호나(영어판) 말씀에 말씀용 기사인 “마음의 평화를 찾음”을 기쁘게 읽었습니다. 앞으로 사랑과 교만에 관한 주제를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대관장단 메시지는 언제나 영감을 줍니다. 이 기사들로 인해 저의 태도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오위세니 모이솔라,  
나이저리아 이바단 지방부  
이바단 제6워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저는 매달 리아호나(스페인어판)를 읽는 것을 즐깁니다. 저는 대학생인데 매일 학교에 다른 책들과 함께 이 잡지를 가져갑니다. 학교 사람들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보려고 늘 저에게 리아호나를 빌려줍니다. 그들도 이 잡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그들의 관심을 끌고, 교회에 대해 이야기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복음을 나누는 대업에 충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친구들이 교회에 활동적으로 남아 전임 선교사가 되는데 리아호나가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앤지 헤레리아,  
에콰도르 과야퀼 파스팔레스 스테이크  
플로 드 바스티온 워드

# 외설물— 치명적인 매개체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한** 때 영국 히드로 공항 주변의 시골을 장식했던 거대하고 위풍당당한 느릅나무들을 나무꾼들이 육중한 도끼와 전기 톱으로 잘라 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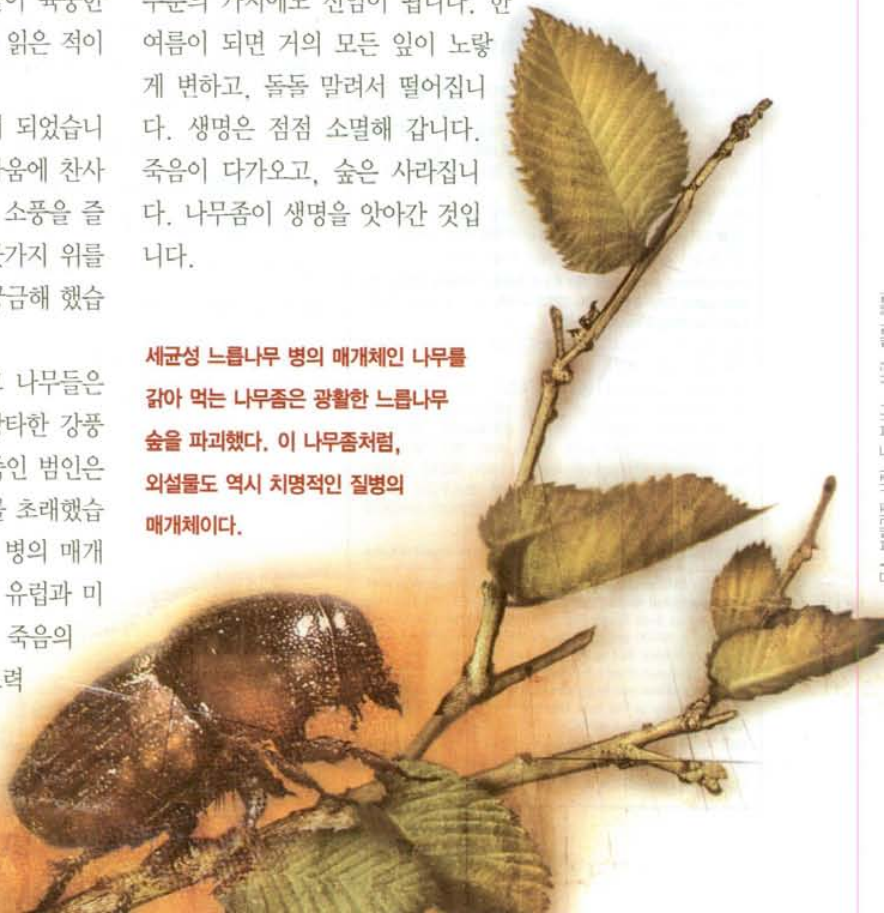
이 웅장한 삼림의 제왕들 중 일부는 100년도 더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나무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냈을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마운 그늘에서 소풍을 즐겼을지, 또 얼마나 많은 새들이 풍성하게 뺨은 나뭇가지 위를 뛰놀며 지저귀는 노래로 하늘을 채웠을 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래 된 느릅나무들이 죽었습니다. 그 나무들은 많은 나이나 연속된 가뭄 혹은 그 지역을 이따금 강타한 강풍으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릅나무들을 죽인 범인은 외관상으로는 전혀 해롭지 않았으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그 범인이 치명적인 세균성 느릅나무 병의 매개체인, 나무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유럽과 미국 전역의 광활한 느릅나무 숲을 파괴했습니다. 그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는 수많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세균성 느릅나무 병은 대개 나무 윗부분의

어린 잎사귀가 마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래 부분의 가지에도 전염이 됩니다. 한 여름이 되면 거의 모든 잎이 노랗게 변하고, 돌돌 말려서 떨어집니다. 생명은 점점 소멸해 갑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숲은 사라집니다. 나무좀이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세균성 느릅나무 병의 매개체인 나무를 갉아 먹는 나무좀은 광활한 느릅나무 숲을 파괴했다. 이 나무좀처럼, 외설물도 역시 치명적인 질병의 매개체이다.**



인간은 이 느릅나무와 얼마나 흡사한지요. 우리는 신성한 계획에 따라 조그마한 씨앗으로부터 성장해, 양분을 얻고, 성숙해 갑니다. 하늘에 비치는 밝은 햇살, 지상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들의 숲인 가족과 친구들 가운데, 인생은 풍성한 보람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앞에 사악하고 악마같은 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외설물입니다. 나무를 갉아먹는 나무좀처럼, 외설물도 치명적인 질병의 매개체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악한 탐

닉"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거의 자각하지 못합니다. 저속한 이야기나 교묘한 만화에 관해 웃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음담패설로 주변을 오염시키고 소중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사람들의 소위 권리라는 것을 열성적으로 보호합니다. 외설물이라는 좁은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면역성을 파괴시키며, 우리 내면에 있는 신성한 본성을 억누르는 치명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사실입니까? 분명 이 사악한 탐닉의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습니까? 실상은 무엇입니까? 봅시다! 들어봅시다! 그리고 행동합시다!

### 외설물과 범죄

외설물이라는 매개체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악합니다. 전염성과 중독성이 강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극도의 선정적인 외설물에 미국인이 쓴 돈만 연평균 80~1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sup>1</sup> 어마어마한 돈이 건전한 용도로부터 흡수되어 사악한 목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외설물에 대한 무관심은 대개, 그것이 희생자 없는 범죄이며, 경찰력은 다른 분야에서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대중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주와 지역의 법률은 비효율적이며, 징벌은 가벼운 데 반해, 거대한 재정적 이익은 이 위험들을 능가합니다.

한 연구 결과는 외설물이 성범죄와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녀를 성추행한 범죄자들의 87퍼센트와 소년을 성추행한 범죄자들의 77퍼센트가 외설물을 사용했고, 범행을 저지른 시기에는 더욱 자주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sup>2</sup>

일부 출판업자와 인쇄업자들은 매일 수백만 장의 외설물을 인쇄하여 출판물로 매춘 행위를 합니다. 비용은 아낌없이 들입니다. 질 좋은 종이에 충전연색으로 명확하게 읽고 또 읽을 수 있는 출판물이 만들어집니다. 영화나 웹사이트 연출자,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자, 연예인 모두가 이 폐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난날의 억제 조치는 사라졌습니다. 이른바 사실주의를 추구합니다.

한 유명한 영화 배우는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허용의 경계가 한도를 넘었습니다. 제가 최근 찍은 영화는 외설적입니다. 대본을 읽었을 때 외설적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외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사가 금요일 밤 시사회에서 반응을 실꿨을 때, 관객들은 환호했습니다.”

또 다른 배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출판업자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며, 대중이 원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니다.”

어떤 이들은 “덜 선정적인” 외설물과 “지나치게 선정적

인” 외설물을 구별하기 위해 고심합니다. 사실상, 전자는 후자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포프의 고전인 “인간론”은 이에 대해 잘 설명해 줍니다.

악은 소름끼치는 외모를 지닌 괴물로,  
보기만 해도 싫어하게 되지만,  
자주 보면 그 모습과 친하게 되어,  
처음엔 참다가, 다음엔 동정을 보이며,  
그 다음에는 받아들인다.<sup>3</sup>

외설물이라는 나무좀의 끊임없는 파괴적 행군은 인간의 생명을 병원균으로 오염시키듯이 우리의 이웃을 파멸시킵니다. 이미 일부 지역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차없이 여러분의 도시, 여러분의 이웃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외설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버

**우리에게는 외설물 나무좀으로 인한 치명적 감염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 사이에서 보루 역할을 할**

**책임과 능력이 있습니다.**



튼을 한 번만 누르면 우리 가정에 있는 텔레비전과 컴퓨터의 화면, 호텔과 영화관, 심지어 직장 내에서까지, 인터넷이 설치된 곳이면 어디에서나 사악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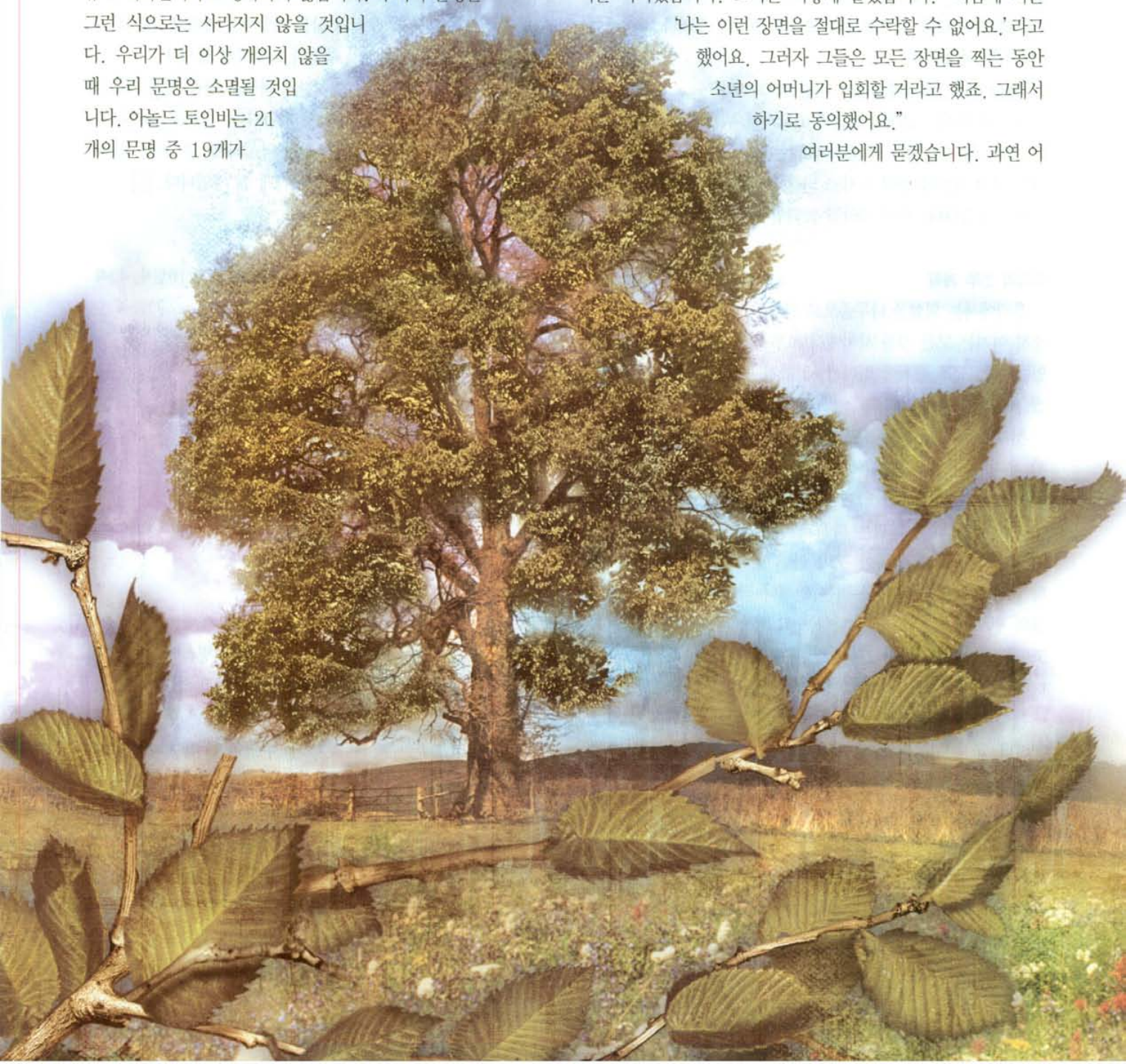
### 경고

칼레튼 대학의 로렌스 엠 고울드 전 총장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폭탄이나 유도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명은 그런 식으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개의치지 않을 때 우리 문명은 소멸될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21개의 문명 중 19개가

외부의 원인이 아닌 내부의 원인으로 소멸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들 문명들이 소멸되어 갈 때 그 소멸을 알리는 악대의 연주나 깃발의 펄럭임은 없었습니다. 천천히, 정적과 어둠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일어났습니다.”<sup>4</sup>

새 영화에 대한 비평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주연 여배우는 처음에 대본과 그녀가 연기해야 할 부분에 반대했다고 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역할은 그녀가 14세 소년의 성 상대가 되는 역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나는 이런 장면을 절대로 수락할 수 없어요.”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모든 장면을 찍는 동안 소년의 어머니가 입회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하기로 동의했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어



편 어머니가 코브라가 자기 아들을 감싸고 있는 광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서서 지켜보겠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독약을 맛보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어머니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주 먼 과거로부터, 오늘날과 관련있는 메아리가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sup>5</sup>

오늘날 우리는 고대의 소돔과 고모라가 부활하는 모습을 봅니다. 먼지 쌓인 성경의 잘 읽히지 않는 장에서 나온 소돔과 고모라는 현대 세상에 현대 도시로 되살아나 실로 커다란 병폐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사악한 탐닉입니다.

### 우리의 전투 계획

우리에게는 외설물 나무즙으로 인한 치명적 감염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 사이에서 보루 역할을 할 책임과 능력이 있습니다. 전투 계획에 있어서 세 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의로움으로의 회귀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기대하시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족이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귀는 다음과 같은 변함없는 진리를 밝힙니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sup>6</sup> 사탄이 유혹하게 버려두지 마시다. 우리는 언제나 작고 조용한 음성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그 음성은 확고한 방향을 제시하며 전능한 영향력을 지닙니다.

둘째, 선한 삶의 추구입니다. 즐거운 삶, 세련된 삶, 인기있는 삶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영생, 즉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남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합시다. 우리의 음성이 들리게 합시다. 우리의 행동이 느껴지게 합시다. 그러면 외설물 나무즙은 그 치사의 과정을 멈출 것입니다.**

편, 아내, 아들, 딸과 영원히 함께하는 끝없는 삶을 추구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사악한 탐닉과 싸워 이기겠다는 굳은 서약입니다. 사악한 매개체인 외설물 나무즙과 마주칠 때, “나를 밟지 말라”라고 적혀 있던 초기 미국의 독립 전쟁 깃발을 우리와 우리 지역 사회의 전투 깃발로 들어야겠습니다.<sup>7</sup>

여호수아의 열렬한 선언에 동참합시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sup>8</sup>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시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합시다. 우리의 음성이 들리게 합시다. 우리의 행동이 느껴지게 합시다.

그러면 외설물 나무즙은 그 치사의 과정을 멈출 것입니다. 사악한 탐닉은 그 적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안전하게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곧 우리 아버지의 해의 왕국에 있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

### 주

1. U.S. News and World Report, 1997년 2월 10일자, 43쪽 참조.
2. 윌리엄 마샬, “A Report of the Use of Pornography by Sexual Offenders”, 1983년, 캐나다, 오타와 참조.
3. 존 바틀렛, *Familiar Quotations*, 16판 (1992), 301쪽.
4. *Scientific American*의 Institute of Life Insurance advertisement, 1968년 5월, 56쪽.
5. 누가복음 13:34~35.
6. 열마서 41:10.
7. *Familiar Quotations*, 779쪽.
8. 여호수아 24:15.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외설물은 사악한 적이다.
2. 우리는 외설물의 치명적인 감염에 대항할 책임과 능력을 갖고 있다.
3. 우리의 전투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를 기대하시는지 이해한다.
  - 영생, 즉 가족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을 추구한다.
  -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한다. 우리의 음성이 들리게 한다. 우리의 행동이 느껴지게 한다.





# 유혹에 맞서

대린 리스고

**유**혹에 맞서는 것은 끝없는 전투이지만, 굴복에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다음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관계없이 유혹에 보다 잘 저항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안들이다.

- 높은 표준을 상기시켜 주는 것들(구세주의 그림, 경전의 인용구, 리아호나 포스터)을 여러분의 가방이나 학교 가방에 넣어 둔다.

- 농담을 하기 전에, 어머니 아빠 또는 감독님께 먼저 그 농담을 한다고 상상한다. 편안하게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 되면, 아무에게도 그 농담을 하지 않는다.

- 여러분과 같은 표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사귈다. 주위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할 때, 옳은 일을 선택하기가 더 쉽다.

- 새벽반 세미나리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렵다면, 자명종 시계를 침대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 두어 그것을 끄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한다.

-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에 대해 항상 생각한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한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 유혹에 빠지게 하는 생각을 머리 속에서 없애기 위해, 찬송기를 읊조리거나, 경전을 암송하거나, 그 생각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해본다.

- 여러분에게 오는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 경전을 읽고 세미나리에 정구적으로 참석한다. 우리의 몸처럼 우리의 영도 힘을 유지하고 유혹과 싸울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매일 영양분이 필요하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받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

(고린도전서 10:13 참조) □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통찰력과 권고

# 살아 계신 예언자의

##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저는 미래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는 있지만, 미래에 대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처해야 할 것은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합니다.”<sup>1</sup>

## 어디에 살든지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우리의 백성은 어느 곳에서나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합니다.”<sup>2</sup>

##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우리의 신앙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관용과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고,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도와주고 들어올려 주며 축복과 도움의 손길을 뻗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왕국에서 크고 첫째되는 율법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37~39)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교회에 대한 그들의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이웃이 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sup>3</sup>

## 우리는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것들과 더불어 지상의 것들도 잘 알고 익히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학업을 다 받으라는 의무를 주셨습니다. 교육은 이 생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쇠가 됩니다. 교육은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례적인 노력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도움으로, 우리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sup>4</sup>

##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각자, 누군가를

이 교회에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한다면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면, 그들 곁에 가까이 머무르면서 그가 복음에 잘 뿌리를 내려 교회에 들어왔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sup>5</sup>

## 성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 준비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집에 가보시지 못한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권능으로, 오늘부터 지난 날을 회개하기 시작하시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그곳에서 함께 결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활을 바꾸시라고 간청하는 바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종으로서 저는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의 문들이 여러분에게 열려서 이 풍성하고 훌륭한 축복들을 향유하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가족으로서 함께 결봉되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sup>6</sup>

## 성전 사업

“우리는 역사상 그 어떤 백성보다도 더 큰 의무와 더 큰 책임을 지닌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을,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

#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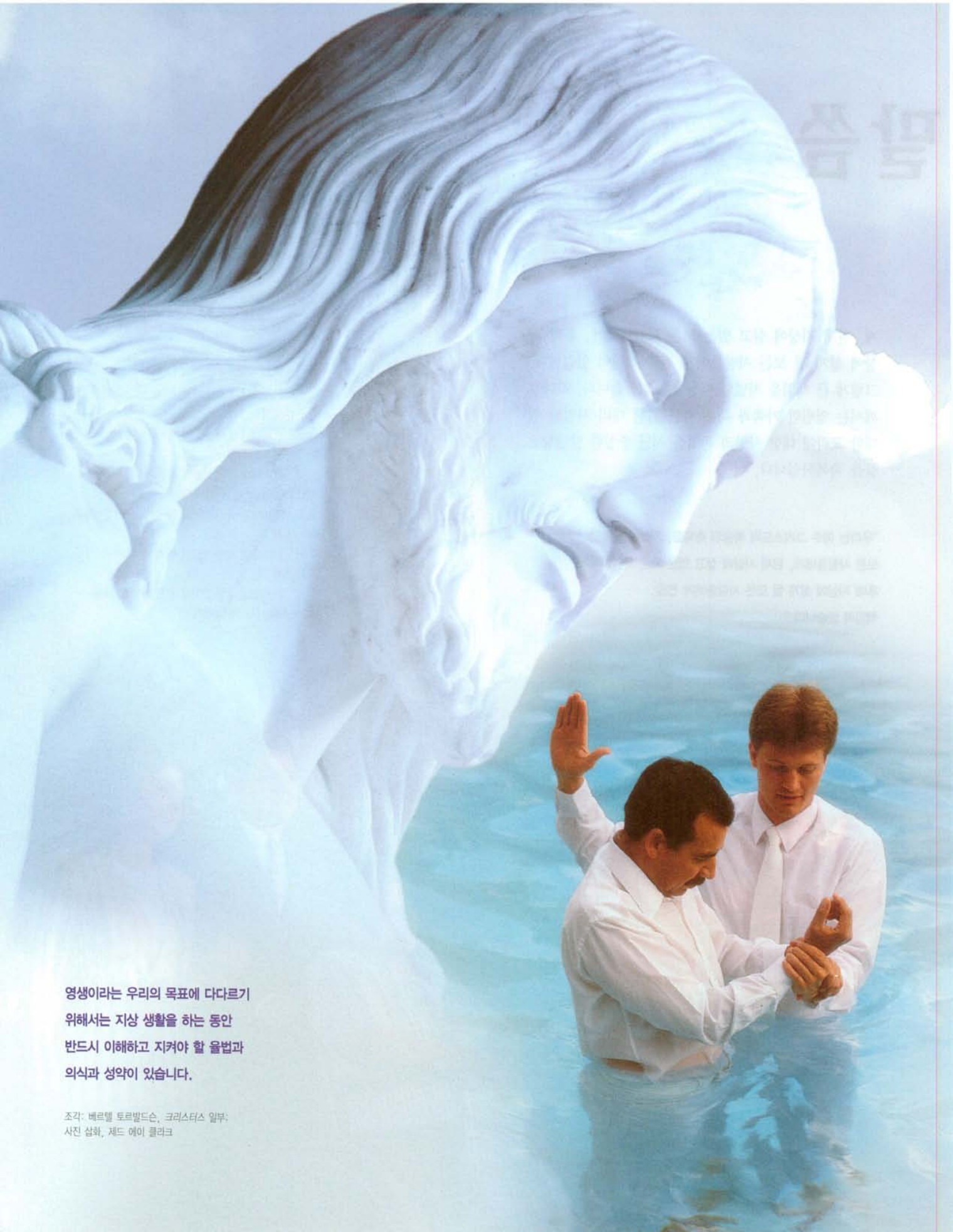
게, 현재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에 지상에 살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책임을 지냈던 백성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가족과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사업의 위대한 교리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지닌 충실한 말일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sup>7</sup>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을,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에 지상에 살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 주

1. 2000년 2월 25일 *데저렛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 1999년 11월 2일 *처치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 2000년 1월 31일 팜에서 열린 모임에서
4. 2000년 1월 26일 오스트레일리아 케언스에서 열린 모임에서
5. 2000년 1월 22일 하와이 오아후 지구 대회에서
6. 1999년 4월 26일 칠레 산티에고 지역 대회에서
7. 1999년 1월 31일 솔트레이크 조단 유타 스테이크 대회에서





영생이라는 우리의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반드시 이해하고 지켜야 할 율법과  
의식과 성약이 있습니다.

조각: 베르텔 토르발드손, 크리스티스 일부;  
사진 삽화, 제드 에이 클러크

# 명예롭게 귀환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삶에 화평과 기쁨을 가져다주고  
우리가 명예롭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계명을  
사랑의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젊었을 때 저는 미공군의 제트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308 전투기 폭격 사단 내 각 기지에는 우리의 노력을 고무시키는 모토가 있었습니다. “명예롭게 귀환하라”라는 우리의 모토는 전투기 측면을 장식했습니다. “명예롭게 귀환하라”는 그 모토를 보며 우리는 성공적으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후에야만 명예롭게 기지로 귀환하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모토, 즉 “명예롭게 귀환하라”는 이 모토는 영원한 진보의 행로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는 하늘 집으로 명예롭게 귀환하겠다는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 비상 사태시 대응 절차

조종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저는 진짜 비행기 모양의 모의 비행 연습 장치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곳의 교관은 우리가 매우 빠른 속도로 나는 제트 전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사태에 익숙해질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각 비상 상황에서 참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각각의 절차를 계속해서 반복 연습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동 반사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내 기계 고장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정

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제어할 수 없을 때는 고도를 선택해 뛰어내리도록 배웠습니다.

저의 비행 대대에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뛰어난 미식축구 선수였습니다. 수년 전에, 그의 팀은 뉴 이어즈 보울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매진된 경기장에 꽉 들어찬 관중과 수많은 시청자 앞에서, 그의 팀은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후에 그와 그의 동료들이 훈련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신들이 큰 경기에서 떨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후회를 안고 살아야 했으며, 남은 인생 동안 최종 점수를 등에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그의 축구 팀원 중 2명이 저의 비행 훈련 기지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범적이고, 잘 훈련된 학생이었으며 뉴 이어즈 보울에서의 교훈을 잘 배운 모범적인 조종사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사람은 더 지식있고 경험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기울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정신과 신체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익히는 비상 사태 훈련 시간이 되면, 그 친구는 교관의 어깨에 팔을 얹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훈련을 세 시간 받았다고 기록하세요.” 그러고는 훈련을 받는 대신 사격장이나 골프장 또는 장교 클럽으로 갔습니다. 그는 비상 사태시 대응 절차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교관이 그에게, 비상 사태가 발생했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저는 절

## 계기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비**행기 조종사가 재난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규칙에 순종해야 하듯이, 영생이라는 우리의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반드시 이해하고 지켜야 할 율법과 의식과 성약이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계기반에 들어온 경고 표시에 자동 반사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서 경고 불빛이 깜빡이는 때를 대비하여, 비상 사태시 대응 절차를 배우고 대처 능력을 기르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계기반에 들어오는 다섯 가지의 중요한 표시가 있습니다.



**나침반**은 자기 편차와, 우리를 목적지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국지풍을 고려하여 정북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려 줍니다.

성신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대기 속도계**는 우리에게 안전 비행과 속도와의 상관 관계를 알려 줍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엔진이 멀어 추락할 수 있습니다.

대 탈출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비상 사태를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였습니다.

몇 개월 후 저녁 훈련 중에, 그의 비행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비행기는 화염 속을 빙글빙글 돌며 1,500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화재 경보기에 들어온 불빛을 보고 그와 함께 있던 젊은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탈출합시다.” 진지하게 훈련을 받았던 이 젊은 조종사는 원심력을 이용해 몸을 밀어내어 탈출했습니다. 그의 낙하산은 즉시 퍼졌고, 그는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심한 부상을 입었으나 그는 살았습니다.

한편, 저의 친구는 비행기 안에 남아 있었고, 추락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던 교훈을 배우지 않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특정한 규칙에 순종해야 하듯이, 영생이라는 우리의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지상 생활 동안 반드시 이해하고 지켜야 할 율법과 의식과 성약이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계기반에 들어온 경고 표시에 자동 반사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서 경고 불빛이 깜빡이는 때를 대비하여, 비상 사태시 대응 절차를 배우고 대처 능력을 기르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조종사들이 계산 오류와 계기반 오독으로 추락합니다. 우리가 성신으로부터 받는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그것을 고의로 무시한다면 올바른 경로를 벗어나 헤맬 것이며, 명예롭게 귀환하는 우리의 목표에 다다르기 전에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격의 경고 불빛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작동합니다. 술, 담배, 마약 또는 외설물을 권유받을 때 이 경고의 불빛이 켜지는데, 우리가 이런 물질을 사용하기로 선택할 때 그것들의 노예가 되고, 도덕적 자유의지는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자동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인도하는 영을 가질 권리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탄은 그분을 유혹했습니다. 이때 그가 이용한 것은 그가 우리를 유혹하

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부와 권력과 세상적인 욕망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물러가라고 하셨고 더 이상 유혹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는 때때로 사탄을 바로 자기 앞에 두기도 합니다.

### 경로에서 벗어남

제가 현기증에 대해서 배운 시기는 공군 교관이 저를 데려가, 바깥을 볼 수 없게 덮개를 덮은 조종석에 앉혔을 때였습니다. 저는 기계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저에게 알리지 않은 채 교관은 제가 중력과 완벽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면서 비행기를 차츰 기꾸로 돌렸습니다. 저의 평형 감각은 비행기가 천천히 전복되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비행기를 조종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다른 모든 학생들이 썼던 모든 방법을 써보

예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탄은 그분을 유혹했습니다. 이때 그가 이용한 것은 그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부와 권력과 세상적인 욕망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물러가라고 하셨고 더 이상 유혹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 연료 계기반은 소비한 연료량과

남아있는 연료량을 알려 줍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영성을 유지하십시오.*



### 고도계를 보고 조종사는 그들이

위치한 고도를 알아 장애물 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위로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써 소란이나 장애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비행 자세 지시기는 지평선과

우리 자세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정확하게 알려 줍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곧고 평평하고 바른 경로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계기반에만 의존하여 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계기반을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신에게 순종하고  
귀기울인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경고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할 때 우리는 영원한 진보를 방해받는 대가를  
치릅니다. □

있었습니다. 고도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체를 뒤로 잡아 당  
겼지만, 거꾸로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저는 당연히 땅을 향  
해 급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다시 통제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착륙 기어에 있는  
작은 표시들이 거꾸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관은 중  
력을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기체를 2~3도 기울어지게 하여, 사  
람들이 자신이 직선 수평 비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한 채, 그들을 거꾸로 돌려 놓을 수 있다는 원리를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현기증을 경험할 수 있습  
니다. 순종이라는 경로에서 단 2내지 3도의 경미한 정도만 기  
울어져도, 얼마만큼 멀리 벗어 나왔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영원한 목적지에 대한 시야와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러면 우리는 그릇된 선택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 비행기가 직  
선 수평 비행에서 조금씩 벗어난 것처럼, 우리가 곧고 좁은 길  
에서 조금씩 벗어나다 보면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우리의 영원한  
목표에 대한 시야를 잃을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추락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바람은 우리가 올바른 경로를 선택하여, 곧고 좁은 길에 머물러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18:22)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빛을 주셔서 우리  
가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시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올 수 있  
게 하십니다.

###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육신을 받기 위해 이 지상에  
내려오고,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 아버  
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사실  
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아  
버지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구세주께서 보  
여주신 모범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저는 제 아들들이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날 때 한 명 한 명을 감싸 안고 그들의 귀에 "명예롭게 귀한  
하저라"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가 그분의 면전을 떠나올 때, 우리 한 명 한 명을 감싸 안으시고는 “명예롭게 귀환하거라”라고 속삭이시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인도를 구하기를, 또 그분께 순종해서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함께 명예롭게 귀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미공군 아카데미에서 1998년 5월 3일에 열린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말씀 발췌.



# 의식과 성약

성스러운 의식과 성약은 우리의 삶에  
신성한 권세를 부여합니다.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장로  
찰십인 회장단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초대함으로써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체포 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의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sup>2</sup> 이와 똑같은 교리를 베냐민 왕도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인간들에게 구원을 전할 이름이나 길이나 방법이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 받을 수 있으니”<sup>3</sup>

이러한 구절들과 기타 많은 구절들이 고대와 현대의 경전 모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를 위한 그분의 희생이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 서 있다는 중요한 교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 일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또 그 이름을 통해서만 가능한 구원의 교리와, 모든 사람을 그분께 나아오도록 초대하는 교회의 사명은 이 지상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과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과 관련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 교리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아무도 여기에서 제외되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초대하는 이 사명을 교회가 어떻게 성취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 모두는 지체없이 “복음

을 전파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죽은 자를 구속함으로써”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그 대답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빨리 대답하는 가운데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다음과 같은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의 백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의식과 성약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을 준비시키

성도들이 복음의 의식과 성약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고 가르침과 훈계로 승영에 이르게 하여 성도를 온전케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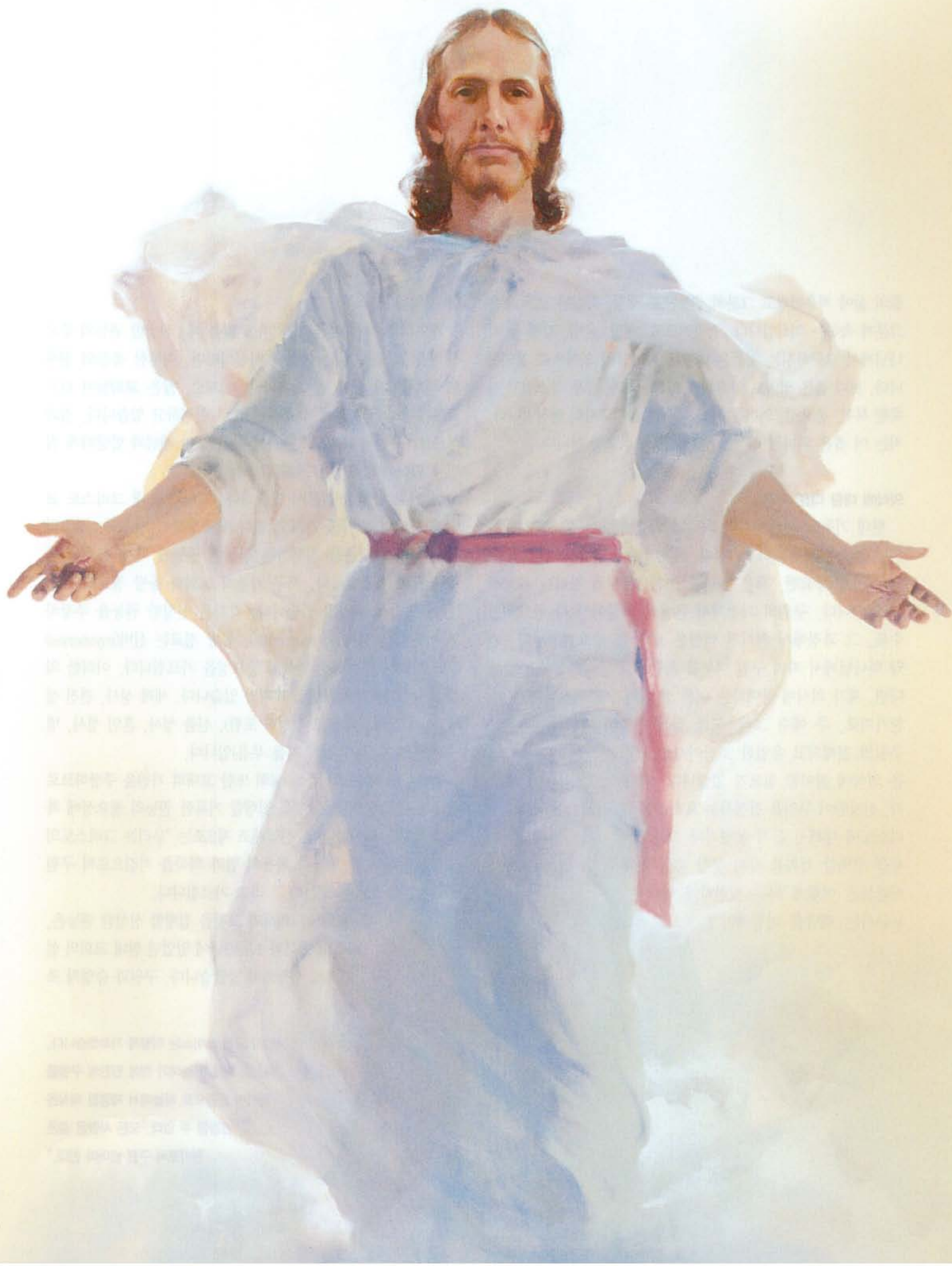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 복음의 대리 의식을 행함으로써 죽은 자를 구원함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는 것과 그 의식에 관련된 성약에 충실하고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께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제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식과 성약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는 것과 그러한 의식에 따르는 성약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그분께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들의 삶에 적용하려고 그분의 권능으로 제정, 확립된 모든 것은 그분께 속하는 의식입니다. 결과적으로, 계명, 율법, 강령 등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의식으로 정의됩니다. 보다 좁은 의미로 이해하면 의식은 또한 매우 성스럽고 거룩한 목적, 중요성, 의미를 지닌 엄숙한 행위로서의 형식입니다. 저는 이 좁은 의미의 의식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의식에 대한 다른 시각

현대 기독교 세계에서의 의식의 역할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신교에서 은혜와 신앙은 구원의 가장 중요한, 혹은 유일한 조건으로서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은혜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수록, 그 과정에서 의식의 역할은 보다 덜 중요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의 구원 여부를 독단으로 결정하신다고 믿는다면, 제가 의식에 참여하는 일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구원의 첫째되고 유일한 조건이라면, 개인은 의식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신앙만이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했거나 그분의 이름을 고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수십 억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누군가는 해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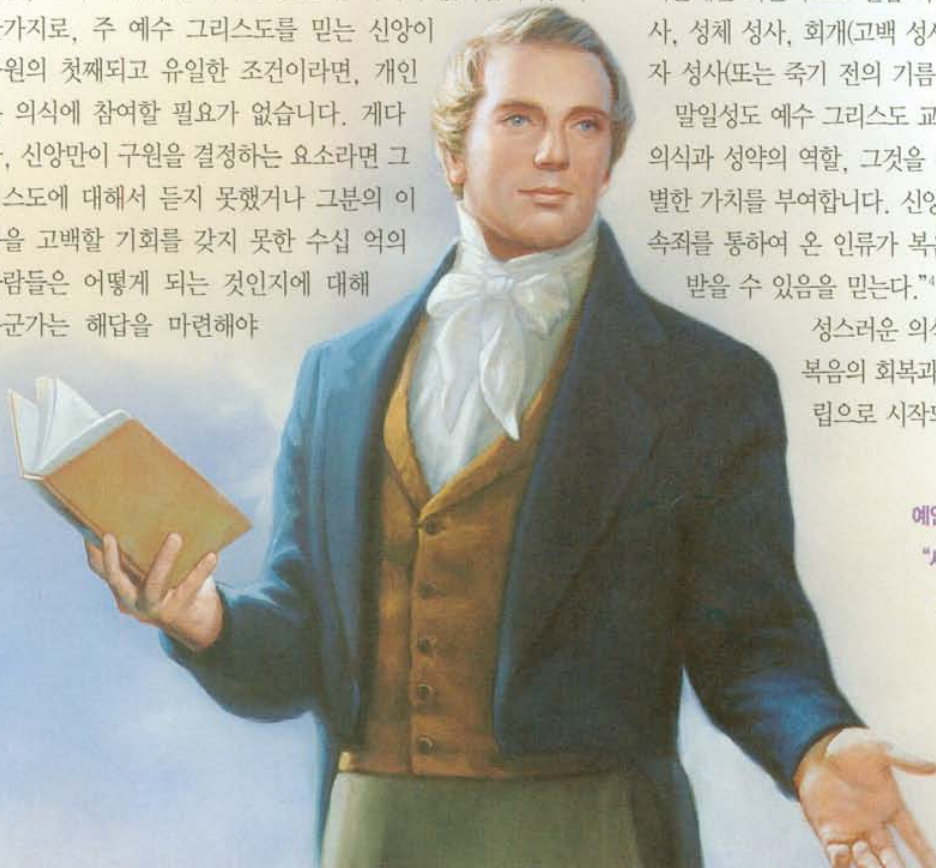
개인의 의식 참여가 그 의미를 잃을 때, 신성한 권능의 중요성 또한 감소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종류의 침례도 별 차이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다른 교회에서 받은 침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원의 조건으로서 신성한 권능의 개념과 합당하게 집행된 의식의 중요성은 크게 감소됩니다.

한 가지 당연한 결론이 있습니다. 교회가 초대 그리스도 교회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 할수록, 성스러운 의식과 그것들을 집행하는 신성한 권능에 대한 강조는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서구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둘 다 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각은 신성한 권능을 주장하고 카톨릭은 성사(sacraments), 동방 정교회는 신비(mysteries)라고 칭하는 성스러운 의식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의식들에는 기본적으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성사, 견진 성사, 성체 성사, 회개(고백 성사 포함), 신품 성사, 혼인 성사, 병자 성사(또는 죽기 전의 기름 부음)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또한 고대의 기원을 주장하므로 의식과 성약의 역할, 그것을 집행할 거룩한 권능의 필요성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신앙개조 제3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sup>4</sup> 라고 가르칩니다.

성스러운 의식과 그것을 집행할 신성한 권능은, 복음의 회복과 1830년에 있었던 현대 교회의 설립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구원과 승영의 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신권으로 하늘에서 제정된 의식은 변경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같은 원리로써 구원 받아야 한다."



건으로서의 복음의 성스러운 의식은 “창세 이전부터 제정”<sup>5</sup> 되었 습니다. 복음의 의식들은 언제나 복음의 변 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 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기초 가 놓이기 전에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신권 으로 하늘에서 제정된 의식은 변경될 수 없 다. 모든 사람은 같은 원리로써 구원 받아야 한다.”<sup>6</sup>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구원은 참 으로 독단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 고 믿을 기회가 있었던 운 좋은 소수에게만 국한되는 축복입니다. 바로 이 지속적이고 변 경할 수 없는 필요조건의 원리로 인해 성전 에서의 대리 의식 이행이 참 의미를 갖게 됩 니다. 예언자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그리 한 침례를 기록하는 것이 “복음을 알지 못하 고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 창세 이 전에 제정하시고 준비하신 의식과 준비”<sup>7</sup>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시간이 흐르고 배도가 일어남에 따라, 신권의 신성한 권능과 성스러운 의식은 변경 되거나 사라졌으며, 그와 관련된 성약도 깨졌습니다. 주님께 서는 이러한 상황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 셧니다.

“이는 저들이 나의 의식을 저버렸고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 렸으며,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 하였음이라.”<sup>8</sup>

이러한 상황으로,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성스러운 복 음 의식의 중요성, 의미, 임명받은 집행에 관련된 지식의 회복 이 요구되었으며 더불어 성스러운 신권의 권능과 그것을 집행할

신권 열쇠의 회복이 요구되었습니다.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올바르게 집행된 성스러운 복음의 의식에 개인적으로 합당하게 참여하는 일 이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겠다는 결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유 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하나님을 아는 길

첫째, **개인적으로 성스러운 복음의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 84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 니다.

“이 대신권은 복음을 전하고 왕국의 비밀 의 열쇠 곧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지니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로써 의식을 집행할 때에 경 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그 의식과 신권의 권위없이는 경건의 능력은 육신을 가진 인 간에게 나타나지 아니 하느니라.”<sup>9</sup>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질서와 그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복음의 최 초 의식들 중에 하나인 침례를 받기 전에, 가장 성스러운 의식 들을 행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질서가 있으며, 우리가 그것에 관 해 배우는 방식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주님은 니파이에게 이러 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인간을 가르치리이다. 내 교 훈을 귀담아 듣고 내 권고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니,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더하여 주며, 넉넉히 가졌노라 하는 자에 게는 가진 것조차 빼앗아 버리리라.”<sup>10</sup>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 은 빛이라. 빛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빛을 받아

들이는 자는 받은 빛이 더욱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드디어  
는 대낮이 되리라.”<sup>11</sup>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받지 않고, 거  
룩한 것에 관한 지식을 점차적으로 많이 받  
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지식에 합당하고 또  
거기에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왕국의 첫째  
되는 의식인 침례에서부터 확인과 신권의 의  
식, 성전에서 집행되는 가장 거룩한 의식에  
이르기까지 기타 모든 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발전합니다. 복음의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함  
으로써 왕국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질서를 갖  
추며,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성스러운 의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밀접  
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제정하신 의  
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배웁니까? 침례를 예로 들어봅시다. 침수로써의 침례  
는 죄 사유함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온전한 결심으로 침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  
는 권세와, 죄에 연관된 죄책감의 짐을 거두어갈 수 있는 권  
세를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  
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  
해 그리고 그분의 크신 권세와 친절함에 대해 압니다. 이러한  
것들을 진정으로 아는 유일한 길은 침례 의식에 합당하게 참  
여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는 문을 열어주며, 이를 통해서  
사람은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확실  
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복음의 다른 모든 성스러운 의식들도 마  
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순종을 통해 성전 의  
식들을 받게 됩니다. 그 곳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들이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지식은,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의식



**왕국의 첫째 되는 의식인  
침례에서부터 확인과  
신권의 의식 등과 같은  
기타 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발전합니다.**

들에 참여함으로써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알  
려지지도, 알려질 수도 없습니다. 예언자 요  
셉 스미스는,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중요하고 거룩한 진리를 알게 된다고 가르쳤  
습니다. “다른 사람의 체험이나 그들에게 주  
어진 계시를 읽는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상  
태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참된 관계를 포  
괄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지식은 이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하나  
님의 의식에 참여하는 경험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sup>12</sup>

성스러운 의식들은 하나님 왕국의 질서  
를 점진적으로 알려주며, 우리는 그 의식들  
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얻  
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 성약에 이르는 길

둘째, 성스러운 복음의 의식들은 하나님과의 엄숙한 성약에  
이르는 길입니다. 의식과 성약은 서로 떼어 놓고 이해하기 힘  
듭니다. 의식에 의해서 우리는 성약을 맺고, 성약에 의해서 의  
식을 받습니다. 유아 축복, 병자 축복, 또는 위로의 축복 등과  
같이 관련된 성약이 없는 의식들도 있기는 하지만, 의식으로  
연결되지 않는 영원한 성약은 없습니다. 성스러운 의식들은 하  
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들을 소개하고, 그 단계들은 의식  
과 관련된 성약의 조건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쯤에서 성약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성약을 베풀고 제공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성  
약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분만이 무덤을 넘어서도 성약의 유효성  
을 보증하실 권능과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비록 사람으로나 주권으로나 또는  
명의상으로나 그 어떠한 것으로 정하여졌을지라도 나 곧 나의 말

숨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은 다 무너져 버릴 것이요, 사람이 죽은 뒤에 부활할 때나 그 뒤에도 남아 있지 아니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sup>13</sup>

우리는 그런 성약을 창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보증할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약을 맺을 수 있을 뿐이며, 그분께서 설명하신 방법에 따라서만 그

성약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관한 예들은 분명하고도 많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 즉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통하여 그 성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의식에 순종하지 않고는, 성약을 맺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용서를 베풀고, 침례를 통해 그분의 왕국의 회원이 되는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축복에는 물론 성신의 은사가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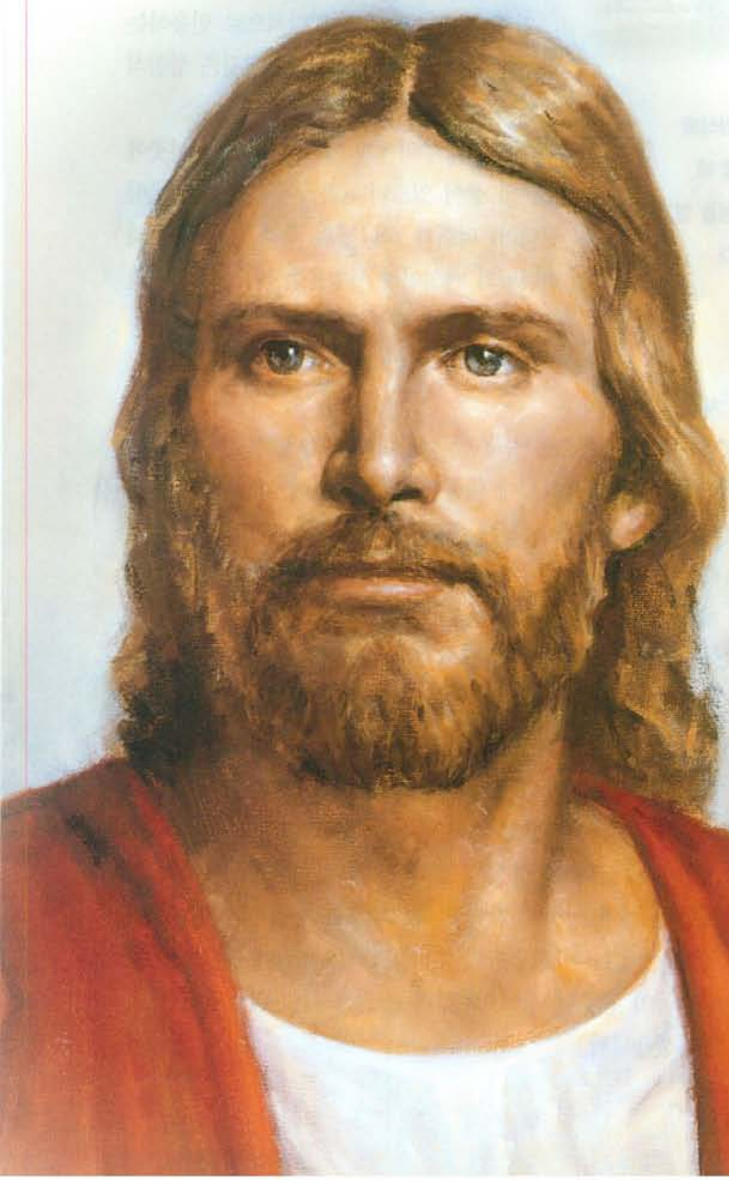
침례와 성찬식은 분리될 수 없게 함께 묶여 있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유함을 받습니다. 성찬을 통해서는 “죄 사유함을 보유”합니다.<sup>14</sup> 침례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기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항상 그분을 기억하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두 경우에 모두, 의식에 대한 우리의 순종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 즉 성약을 주십니다. 성약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의식 그 자체에 생명과 의미를 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배정해 주지 아니한 것을 너희 손에서 어찌 받으리오?”<sup>15</sup> 성스러운 복음 의식을 행하는 데 배정된 권능은 의식의 유효성에 있어서, 성약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첫번째 시현에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심히 멀

도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sup>16</sup>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는 것은 많은 기독교회에 통용되는 침례, 성찬, 결혼과 같은 의식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속죄의 권세는 신권의 열쇠 아래 집행되는  
성스러운 복음 의식에 의해 열려집니다.



의식들의 집행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신권의 권능과 이에 수반되는 성약이 없다면 그 의식의 권세는 결여됩니다. 의식에서 신권의 권능과 성약의 부분을 빼어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는 것일 뿐입니다.

#### 신성한 권세의 엔다우먼트

셋째, 성스러운 의식은 우리의 삶에 기록한 권세를 제공합니다.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sup>17</sup> 수많은 성구들이 세상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에는 당연한 대립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별해 주는 것들 중 하나는 그 안에 존재하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감각입니다. 세상은 오직 세속적인 것에 대한 감각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스러운 복음의 의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방법으로는 향유할 수 없는 축복과 권세를 가져옵니다. 속죄의 권세는 신권의 열쇠 아래 집행되는 성스러운 복음 의식에 의해 그 문이 열립니다. 죄 사유함은 침례 의식을 통하여 베풀어집니다. 확인은 성신이 늘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가져옵니다. 뱀기세덱 신권의 성임은 “하나님 ... 의 이름으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sup>18</sup>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성전의 거룩한 의식에 합당하게 참여할 때, 우리는 영원한 가능성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1801~1877)은 성전 엔다우먼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엔다우먼트는 주님의 집에서 그러한 모든 의식을 받는 것이며, 이 의식은 여러분께서 이생을 떠난 후에 필요한 것으로서, 파수꾼으로서 있는 천사를 지나가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가게 해줍니다.”<sup>19</sup>



성전의 거룩한 의식에  
합당하게 참여할 때,  
우리의 영원한 가능성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복음 의식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 가장 보편적인 것 중의 하나가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문자 그대로 수천 번 이 의식에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하게 성찬을 취함으로써 신성한 권세의 엔다우먼트를 매주 우리 생활에 가져와야 합니다.

침례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성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성찬식에도 훌륭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엘마기] 무리에게 이르기를, 보라 이곳에 몰몬의 샘이 있으니, (저들이 이같이 이름하였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

한 자를 위로하며 ...

“... 주의 이름으로 침례 받음에 꺼릴 바가 있겠느냐?”<sup>20</sup>

이것이야말로 성찬식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애통해 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기꺼이 애통하며 이 모임에 참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통해 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구세주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찬식이 집행되는 동안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성찬식에 오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성약을 주십니다. 성신은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애통해 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를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관련된 성약으로부터 소원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 토의문용 용(스)용 합복승 국(성) (도)용(사)

성스러운 의식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우리의 구원과 승영에 필수적입니다. 복음의 성스러운 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왕국에 대해 배우고, 거룩하고 영원한 성약을 맺으며, 우리 삶에 임하는 신성한 권세를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게 하여 그 안에서 온전해지게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제정하신, 신성한 의식에 합당하게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희생과 그분의 거룩한 구원의 권세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

2000년 10월 27일 브리감 영 대학교 노변의 모임 말씀에서 발췌

## 주

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
2. 요한복음 14:6.
3. 모사이야서 3:17.
4. 신앙개조 제3조.
5. 교리와 성약 124:33.
6.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1976), 291쪽.
7. 교리와 성약 128:5.
8. 교리와 성약 1:15~16.
9. 교리와 성약 84:19~21.
10. 니파이이서 28:30.
11. 교리와 성약 50:24.
12.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07쪽 ; 강조 부분이 표시됨.
13. 교리와 성약 132:13.
14. 모사이야서 4:11~12 참조.
15. 교리와 성약 132:10.
16. 요셉 스미스서 2:19 강조 부분이 표시됨.
17. 요한복음 18:36.
18. 교리와 성약 1:20.
19.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1997), 302쪽 참조.
20. 모사이야서 18:8~10

이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복음 원리(31110 320) 제15장 "주님의 성약의 백성"을 참조한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엔다우먼트는 주님의 집에서 그러한 모든 의식을 받는 것이며, 이 의식은 여러분께서 이생을 떠난 후에 필요한 것으로서, 파수꾼으로서 있는 천사를 지나가 아버지의 면전에서 들어가게 해줍니다."



# 성스러운 음악으로 가정과 삶을 축복함

**성**스러운 음악의 가치를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찬송가는 주님의 영을 불러들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찬송가는 우리의 영을 고양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의로운 행동을 하게 합니다. 찬송가는 우리의 영혼을 경건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며,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가정에서 찬송가를 가르치고 부를 때 그것은 “가족에게 아름다움과 평화의 영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가족간의 사랑과 단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대관장단 머리글”, 찬송가, ix~x쪽)

## 개인적인 힘의 근원

성스러운 음악은 성신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한 자매는 오랫동안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몇 년 전에 그녀는 장기간의 고통스런 의료 검사를 받고 나서 어떻게 그것을 견디어 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마음속으로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초등학교 노래를 다 불렀어요.”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고통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합당한 음악은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하려는 유혹에 저항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씀했다. “여러분은 더러운 생각

이 마음의 무대를 지배하여 명령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좋아하는] 찬송가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 음악이 시작되고 마음 가운데 가사가 떠오르면 불결한 생각은 부끄러워 도망쳐 버릴 것입니다.”(“Inspiring Music—Worthy Thoughts”, *Ensign*, January 1974, 28쪽)

## 가정에서의 성스러운 음악

성스러운 음악은 복음의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에 따라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힘이 있다. 한 자매는 세미나리에서 청소년들에게 교회 음악에 대해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녀는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초등학교에서 여러분은 어떤 공과를 배웠습니까?” 학생들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러자 그녀는 학생들에게 기억할 수 있는 초등학교 노래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그들이 열거하는 노래 제목은 끝이 없었다. 그 자매는 칠판에 복음의 원리들을 적었으며 각 원리 아래에 초등학교 노래와 찬송가를 적었다. 청소년들은 음악이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며, 찬송가는 그것들이 가르치는 메시지와 함께 오랫동안 기억된다는 것을 금방 이해했다.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성스러운 음악을 사용하는 가정은 성신의 영향력에 대해 문이 열려 있는 가정이다. 대관장단이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이유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찬송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안식일에, 가정의 밤 시간에, 경전 공부와 기도하는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일하면서, 놀면서, 여행하면서 함께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자장가로 찬송가를 불러 주어 신앙과 간증을 키워 주십시오.”(찬송가, 대관장단 머리글, x쪽)

가정과 개인의 생활에 시온의 노래가 가득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여호와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노래 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시편 100:2) 것입니다. □



#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인사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1896~1978)

십이사도 정원회



1869년에 브리감 영 대관장(위)은 당시 절제회라고 불리던 초기 청년 조직을 설립했다. 절제회는 영 대관장의 가족들(아래)로 시작되었다.



1869년 브리감 영 대관장이 당시 절제회라고 불리던 초기 청년 조직을 설립했을 때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딸들이 보이는 다소 세상적인 관심사와 행동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영적이고 지적인 발전에 대해 염려했으며, 교회의 젊은 회원들이 점차 물질주의나 상업주의적인 경향에 물들어 감으로써 순수함을 상실해 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의 딸들은 그가 시온의 청년들 가운데서 보아 왔던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하는 듯했습니다.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는 청남과 사교 모임, 극장, 아이스 스케이팅, 눈썰매, 건초 수레 피크닉, 소풍, 의상 등이었습니다.

교회의 대관장이자 테저렛 준주의 전임 행정관으로서 브리감 영은 모든 지역 주민의 도덕적, 사회적인 복지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느꼈습니다.

청남들은 그다지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많은 청남들이 학업을 더 쌓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경전의 말씀을 숙지하며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청남들은 농사와 다른 산업 분야의 일들, 즉 집, 상점, 와드 건물, 도로 등을 건설하거나 성전을 건축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집안 일과 병자를 돌보는 일에 청년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딸들이 더 완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으로서의 덕성과





영 대관장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나쁘고 가치 없는 모든 것을  
절제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향상시키도록  
하거라.”

자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딸들에게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가족에게 전할 중요한 사항이 있었으므로,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에게 전 가족을 라이온 하우스에 모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안락한 응접실에서 가졌던 모임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가족 기도를 마치고 나서 영 대관장은 아들과 어린 딸들을 내보낸 후에 성숙한 딸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

회의 모든 회원들이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있으며 나의 자녀들이 보여 주는 모범을 지켜보고 있단다. ... 이러한 이유로 나는 먼저 우리 가족을, 질서 정연한 습관과 검소, 근면, 순결을 장려하는 사회로 조직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치스러운 복장과 ... 언어의 방종함, 어리석음을 범해 온 말과 경박한 마음을 절제해 주기 바란다. 나쁘고 가치 없는 모든 것을 절제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향상시키도록 하거라.”(수사 영 계



왼쪽 위 사진 촬영: 리처드 영, 오른쪽 위 사진 촬영: 리처드 영, 오른쪽 아래 사진 촬영: 리처드 영, 오른쪽 위 사진 촬영: 리처드 영, 오른쪽 아래 사진 촬영: 리처드 영



이즈, *History of the Young Ladies' Mutual Improvement Association* [1911], 8~10쪽)

현대 사람들에게 절제라는 말은 다소 케케묵은 구시대의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사전에서는 절제라는 말을, 절약하기 위해 잘라 버리다, 줄이거나 감하다, 단축하다 라고 정의합니다.

앞서 인용한 말씀의 마지막 문장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나쁘고 가치 없는 모든 것을 절제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향상시키도록 하거라.”

#### 과제를 받아들임

다양한 감정으로, 브리감 영 대관장의 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는 그의 딸들을 기록했으며 이후에 조직에 지침이 되는 결의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영 대관장이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신성한 영감을 통해, 단지 그의 가족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젊은 여성들이 유익과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절제회를 조직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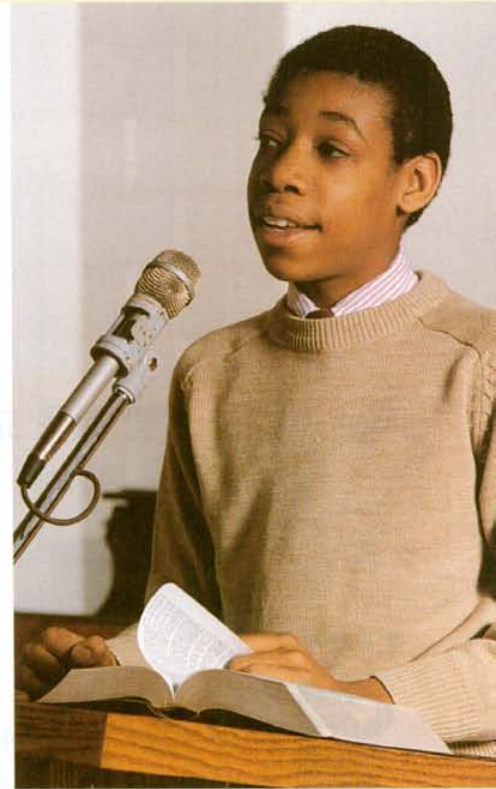
그들은 곧 절제회의 취지를 파악하고 “귀감이 되기에 합당하”도록 노력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온 계곡에 있는 모든 젊은 여성들은 거실, 학교, 와드 건물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 청남을 위한 프로그램

절제회가 모든 말일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브리감 영 대관장은 교회의 청남들, 특히 겨울철이면 남는 시간이 많은 그들의 일반적인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사회 구조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스포츠나 상업적인 오락물이 거의 없었으므로, 그는 청남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니어스 에프 웰스는 교회 청남들의 상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모임을 조직하라는 임무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청남 상호 향상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절제회는 그 이후 최근까지도 청년 상호 향상회로 알려졌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종교는 발전하는 종교입니다. 그것은 작고 제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넓히고 인도하여, 우리의 존재를 영예롭게 하는 예지의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Deseret News*, 15 June 1864, 294쪽) □

1969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종교는 발전하는 종교입니다. 그것은 작고 제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넓히고 인도하여, 우리의 존재를 영예롭게 하는 예지의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 후임

저는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동반자는 ...

존 엘 하우어터

**엘** 네 살 된 형제가 가정 복음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까?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장로에게 가정 복음 교육을 하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장로도 아니고 만난 적도, 심지어 교회에서 한번도 본 적 없는 장로에게 말입니다. 그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그의 이름과 그가 과거에 운동 선수였다는 사실 뿐이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가정 복음 교육 후임 동반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한 가정도 방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 두 명이 이미 가정 복음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저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지명을 받았으며 다른 한 명은 장로 정원회 회장단 일원과 함께 일하도록 지명 받았습니 다. 저의 부친은 감동단에서 봉사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에 가정 복음 교사로 지명 받지 않았습니다. 14살 된 동반자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건 켄슨 형제님 탓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는 저의 집사 정원회 고문이었으며 우리에게 가정 복음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아론 신권을 소유한 교사로서, 충실한 가정 복음 교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켄슨 형제님은 가정 복음 교육을 하도록 선임 동반자에게 상기시키고, 격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저의 선택 사항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선임 동반자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 제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고 가정 복음 교육 날짜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임 동반자였습니다. 그가 책임을 맡아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를 만나러 가는 것이 너무 주제넘은 행동은 아닐까요? 저의 태도에 기분이 상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켄슨 형제의 말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임 동반자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후임 동반자가 연락을 해서 가정 복음 교육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그래도 선임 동반자가 가정 복음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선임 동반자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가정 복음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는 그 일을 하지 않은 책임을 함께 나누어 가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동반자를 찾아가 저를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일요일, 저는 교회에서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반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웃지는 않을까? 화를 내며 쫓아낼지도 모르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이미 시도하겠다는 결심을 한 뒤였습니다. 부정적인 답변을 듣더라도 나는 적어도 내가 할 일을 한 것이니까요.

그의 집 가까이 도착했고, 마지못해 마당으로 들어서면서, 간단하고 솔직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두려움이 잠시 사라졌으며 저는 재빨리 계단에 올라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안으로부터 파티를 하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가 나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 다시 몰려오고 있었지만 도망을 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한 여인이 나오더니 무슨 일이라고 물었습니

# 동반자



삽화: 로저 모크쿠스

다. 그 여인은 친절했던 것 같기도 하고, 무례했던 것 같기도 하고, 신경질적이었거나 무뚝뚝했던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그곳에 찾아간 이유를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존슨 형제님 계신가요?” 조그만 목소리로, 마침내 제가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웃음소리를 들은 것 같았지만 확실치는 않았습니다. 숨을 가다듬기도 전에, 키 큰 한 남자가 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그다지 친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가 약간 미소를 지은 것으로 보아, 제가 겁먹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이름은 존이에요.” 겁먹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목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형제님과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인데요, 우리가 언제쯤 가정 복음 교육을 할 수 있나 궁금해서요.”

그가 재미있어 했는지 아니면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현관에서 저를 쫓아내진 않았습니다. **시작이 좋으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네 전화 번호를 알려 주렴. 내가 전화하마.”

저는 기분 좋게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꽤 노력했고, 그가 전화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노력은 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일어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전화를 받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늦게, 동반자인 존슨 형제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요일 저녁 7시에 가정 복음 교육을 하러 갈 수 있겠니?” 하고 그가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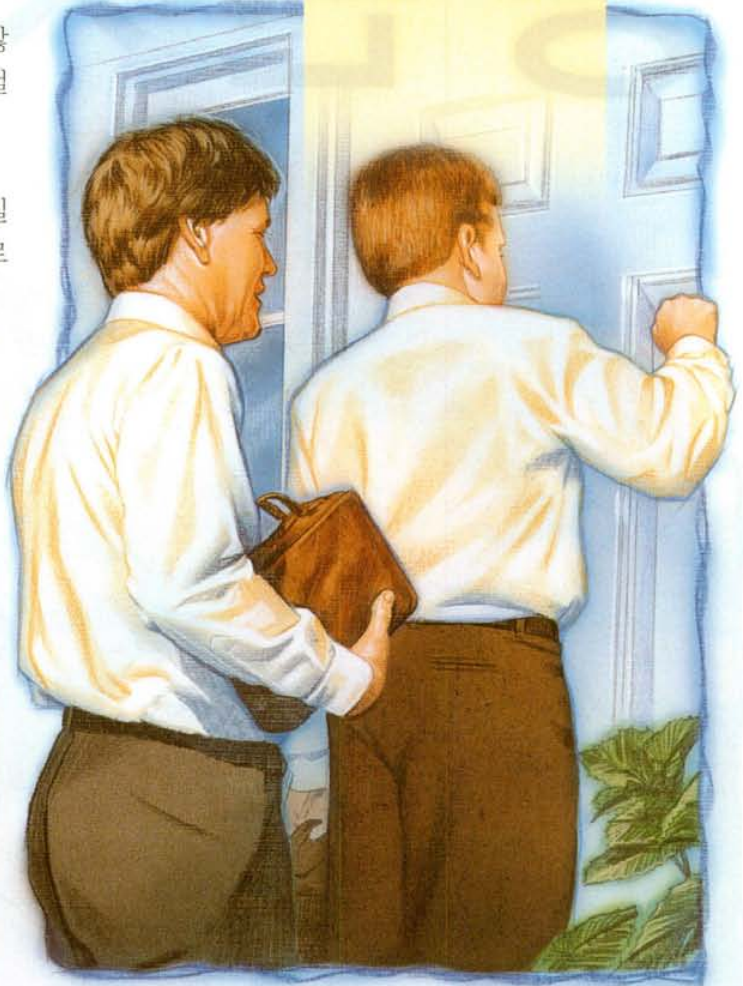
“네, 네. 물론이죠.” 저는 더듬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때 널 데리러 가마. 잘 자거라.”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우리는 가정 복음 교육을 하러 갔습니다. 후에, 그날 제가 떠난 뒤 그가 장로 정원회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에게 지명된 가족들의 명단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들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매달 셋째 일요일이면 제가 그의 집으로 찾아갔고, 그는 약속을 정했습니다. 동반자로 함께 봉사했던 2년 동안 우리는 방문을 거의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또

동반자로 함께 봉사했던  
2년 동안 우리는 방문을  
거의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무척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 무척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존슨 형제는 교회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는 장로 정원회 회장이 기절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아론 신권 소유자가 가정 복음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저활동 형제도 가장 활동적인 가정 복음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로서, 존슨 형제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

존 엘 하우어터는 유타 샌디 센추럴 스테이크 세고 릴리 와드의 회원이다.



# 나는 어울리지 않았습시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나 어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번엔, 제가 그곳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제니 윌라드슨

삽화: 스킷 스노우

**최** 근에 저는 다른 주의 대학교에서 열린 축구 선수 모집에 참가하려고 여행을 했습니다. 꽤 낯선 학교인지를 직접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신입생들에게 대학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주기로 결정한 팀의 몇몇 여학생들은 우리를 한 파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파티는 제가 알고 있던 그런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파티장에 있던 한 남학생은 신입생들에게 원 가운데로 모이라고 하고는 술병을 돌렸습니다.

제가 병을 건드리려고도 하지 않자 그가 말했습니다. “넌 아예 맛도 안 볼 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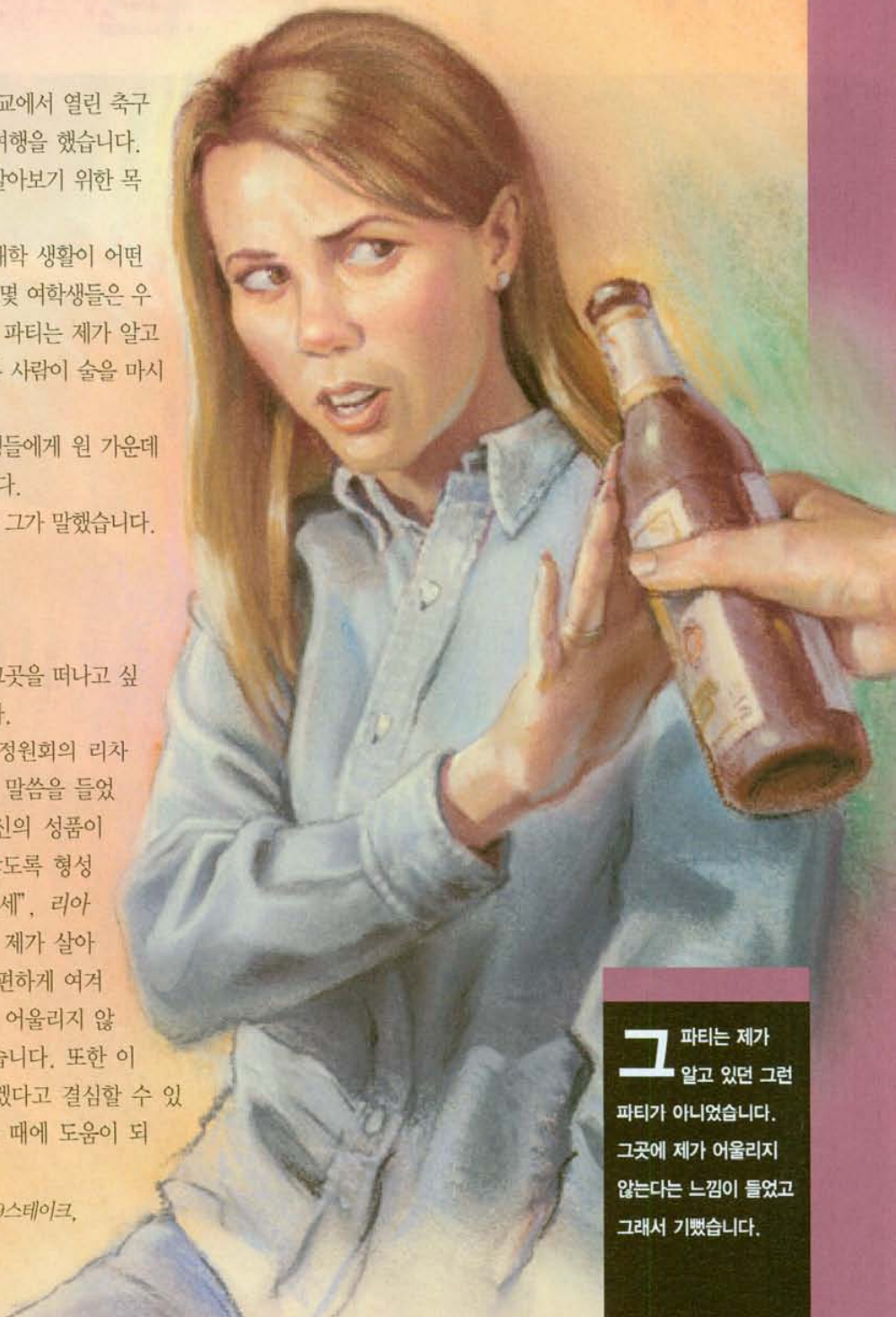
“고맙지만 됐어요.”

그는 한참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파티 내내 몹시 불편했으며 그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롭게 생활함으로써, 자신의 성품이 속하지 말아야 할 곳에 어울리지 않도록 형성된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의의 권세”, 리아 호나, 1999년 1월호, 70쪽) 저는 제가 살아온 방식으로 인해 그러한 파티가 불편하게 여겨졌던 것에 감사합니다. 그곳에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또한 이미 오래 전에 결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결심은 필요한 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제니 윌라드슨은 브리감 영 대학교 제19스테이크, 제212와드 회원이다.



**그** 파티는 제가 알고 있던 그런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케냐 출루의

# 개척자들

이 데일 레바론



나이로비 남동쪽으로 놓인  
높은 산악 지대에서, 복음의 씨앗은  
케냐의 출루 주민들 가운데  
크게 성장하고 있다.



사진 촬영: 이 데일 리버모, 포지티브 씬 재외.

**몇**년 전에 나는 브리감 영 대학교의 교회사 교수로서 역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갔다. 그때 케냐 출루를 찾아간 일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여행은 무척 힘들었다. 나이로비에서 240킬로미터를 가는 데 다섯 시간이 걸렸으며 그 가운데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는 한 시간 반이 소요되었다.

우리는 일요일에 도착하여 교회 모임이 시작되기 한 시간 전에 모임 장소로 갔다. 모임 장소는 폭이 4.5미터에 길이가 9미터 가량 되는 정자였다. 벽은 기둥 사이를 긴 풀로 엮어 만들었고, 지붕은 야자수 가지와 골함석이었다. 정자 옆에는 손으로 쓴 “말일성도 출루 지부”(L.D.S. CHYULU BRANCH)라는 조그만 팻말이 있었다. 입구에는 관목이 무성했다. 우리는 5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이 20여 명이 교회로 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지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들은 작은 나뭇가지로, 지난 모임 후 실내에 날아든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쓸어냈다. 그들은 청소를 하고 나서 다듬지 않은 나무 벤치도 가지런히 정돈했다.

곧 가족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음악은 건전지로 작동하는 녹음기에 찬송가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 연주하는 것을 대신했다. 모두 노래를 불렀으며 어린이들은 경건했다. 성인 주일학교 공과는 정자 안에서 진행했으며 초등학교와 다른 반들은 바깥에 있는 여러 장소에서 행해졌다. 12살 된 어린 자매가 30여 명이나 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쳤고 어린이들은 열심히 공과를 들었다. 그날은 금식 간증일이었으며 간증과 기도는 회원들의 모국어인 스와힐리어와 영어로 진행되었다. 두 언어에서 모두 강한 영을 느낄 수 있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그런 장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개척자 시대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나날들은 포장마차나 손수레와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 복음이 어느 한 나라에 소개될 때마다 이 사업의 문을 여는 일에 참여하는 개척자들이 있습니다.”<sup>1</sup> 이 개척자 정신은 지금도 아프리카에 건재하고 있다. 1978년, “교회의 모든 합당한 남자 회원은 인종이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신권의 직에 성임될 수 있습니다.”<sup>2</sup> 라는 계시가 밝혀진 이래로 아프리카에서의 교회는 수적으로나<sup>3</sup> 신앙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 케냐의 초기 개종자들

케냐에서의 교회는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기 20년 전부터 뿌리를 내렸다. 1970년대에 관심 있는 많은 케냐인들이 외국인 말일성도 가정에서 갖는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 케냐에서 처음으로 개종한 전직 장관 엘리자판 오사카, 그의 아내 에



1992년 7월 초등회에 모인 출루의 어린이들.

비시바, 그리고 두 자녀가 1979년에 침례를 받았다. 1980년에 선교사인 파렐 장로와 블란치 맥기 자매가 케냐에 도착했으며 일 년 후, 두 개의 지부를 산하에 둔 케

냐 나이로비 지방부가 구성되었다. 1993년에 케냐에서 벤슨과 닉슨 카수 두 형제가 최초의 전임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들은 각각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선교부와 워싱턴 DC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1980년대에 케냐 정부는 교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부하고 1989년에는 타국적을 가진 모든 말일성도 선교사들에게 케냐를 떠나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다. 이때, 나이로비 출신의 경영 공학자인 조셉 시타티가 케냐인으로는 처음으로 지방부장의 부름을 받았다.

초기 회원들의 신앙과 수고에 바탕을 둔 이러한 성장 형태는

전세계적으로 전형적인 모습을 띤다. 당시 대관장단 제2보좌였던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 회원이 변성하는 곳은 어디든지 먼저 개척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경건하고 설득력 있는 개척자들을 택하셔서 곧 뒤따르게 될 교회 조직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준비 하셨습니다. 종종 그러한 힘은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sup>4</sup>

출루의 줄리어스와 사비나 카수는 케냐의 초기 개종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었으며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었다. 1981년,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살던 줄리어스는 그곳에서 일하던 말일성도 데니스 차일드를 통해 교회를 알게 되었다. 줄리어스는 자주 물문경과 선교사 소책자들을 읽었으며 차일드 형제와 함께 그것들에 관해 토론했다. 줄리어스는 이렇게 회상한다. “물문경을 두 번째로 읽고 그것에 대해 기도를 드렸을 때, 마음에 불타는 듯한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sup>5</sup> 줄리어스는 진리에 대해 증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을 더 기다려 1986년 2월에 침례를 받았다. 그의 아내 사비나는 그 해 11월에 침례 받았다. 침례를 받은 직후 그들은 나이로비를 떠나 출생지인 출루로 돌아갔다.

## 반대에 부딪친 교회

카수 가족이 출루에 도착한 이후 지부가 조직되었으며 카수 형제가 지부장으로 부름 받았다. 그의 지도 아래 교회는 급속히 발전했으며 그곳의 종교 및 지역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속해 있던 구도자들이 이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곧 교회와 회원들에게 상당한 반대가 뒤따랐다.

교회는 케냐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9명 이상의 성인이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일은 불법이었다. 몇 건의 고소가 접수되자 카수 지부장은 체포되어 12시간 동안 감금되었다. 그는 자신이 체포된 이유는 그의 교회 활동을 강력하게 반대해 온 저명한 지역 지도자이자 종교 지도자인 테이비드 엠 말루티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들의 반목이 대중에게 알려지자 말루티 씨는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했

다. 어떻게 카수 지부장과 같은 지적이고 존경 받는 인물이 그러한 교회를 추종하는가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말루티는 교회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말루티 씨가 과거에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카수 지부장은 그의 그러한 동기를 의아하게 여기고 질문에 대답하기를 꺼려했다. 그러나 마침내 말루티 씨에게 “자신이 개종한 이유를 설명하는” 글을 써 보내는 데 동의했다.

말루티 씨는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 그리고 교회의 다른 서적들을 읽어 보고 감명을 받았다. 더군다나 그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간증이라는 소책자를 읽고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적어도 40번은 그 책자를 읽었다. 교회에 관해 연구를 하는 동안 그는 교회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던 공개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는 열렬하게 교회를 옹호했으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하기도 했다. 그가 간증을 마쳤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카수 지부장과 말루티 씨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친한 친구가 되었으며 말루티 씨는 침례를 받고 지부 선교 책임자로 부름 받았다.

#### 공식적인 승인과 선교 사업

카수 지부장 부부와 자녀들은 교회가 케냐에서 공식적인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다. “가끔 가

족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교회가 케냐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을 빠뜨리곤 했습니다.”라고 카수 지부장은 회상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죠. ‘아빠, 교회의 승인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하고 말입니다. 저의 자녀들은 신앙이 강했습니다.” 1991년 2월 25일에 교회가 공식 승인을 받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울며 기도하면서 감사의 표시로 금식을 했다.

8개월 후, 케냐가 복음 전도를 위해 헌납되었을 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오랫동안의 기다림 후에, 마침내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부가 설립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굳세고 견고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sup>6</sup>

카수 지부장은 즉시 정부 승인서를 한 부 얻어 출루 부족의 부추장에게 가져갔고, 교회의 합법적인 운영 권리를 확인했다. 성도들은 이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었으며 회원 수는 금세 40명으로 늘어났다. 그들에게는 모임 장소가 필요했으나 아직 선교부가 조직되지 않은 상태여서 집회소가 제공되지 않았다. 그래서 회원들은 카수 지부장의 땅에 작은 정자를 지은 것이다.

초기의 개종자인 줄리어스와 사비나 카수는 1986년에 침례 받았다. 카수 형제는 출루에서 초대 지부장으로 봉사했다.





출루에는 물이 부족했으므로 침례식을 준비하는 일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트럭으로 물 탱크를 실어 왔고, 출루 지역 형제들이 무려 다섯 시간 동안 펌프질하여 6킬로미터를 날라온 물로 물탱크를 채웠다.

1991년 7월에 케냐 나이로비 선교부가 조직되었으며 레리 브라운이 선교부장으로 부름 받았다. 그는 곧 브라운 자매와 함께 출루를 방문했다. “여행은 힘들었지만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라고 브라운 부장은 말한다. “정자에서 성찬식을 가졌는데 비가 와서 건물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신권 소유자들이 성찬 축복을 위해 무릎을 꿇기 전에, 바닥에 낡은 부대를 깔았습니다. 그 다음 번에 방문했을 때는 우연히 성찬기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조그만 비스킷이 단 두 조각 있더군요. ... 그들은 비스킷을 잘랐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63명이었으므로 저는 비스킷이 턱 없이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5,000명을 먹인 일과 같았습니다.”<sup>7</sup>

#### 침례를 위해 끌어온 물

많은 출루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했지만 그곳은 고립

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선교부 지도자들은 충분한 수의 지역 지도자들이 양성될 때까지 회원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들 가운데는 매주 다른 마을에서 오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편도에만 두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고 갔다. 그들이 자신과 또다른 사람들을 침례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브라운 부장은 그들 두 사람과 그들의 가족만 침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요청을 수락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가족은 보통 대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쁨에 넘쳐 침례를 받으러 왔다.

출루에는 물이 부족했으므로 침례식을 준비하는 일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브라운 부장과 선교사 부부가 나이로비에서 출루까지, 침례복과 침례탕으로 사용할 물탱크를 트럭으로 실어 왔다. 출루 지역 형제들은 물을 펌프질하고 그 물을 “세상에서 가장 돌이 많은 길” 6킬로미터 위로 날라오는 데는 무려 다섯 시간이 걸렸다. 그런 다음 형제들은 물탱크 안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침례 받는 사람들이 물에 충분히 잠길 수 있게 했다. 침례를 받고 나서 새로운 회원들은 간증을 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렸으며 특별히 10년 동안 교회에 참석한 한 자매는 누구보다도 더 큰 감사를 드렸다. 어두운 밤에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찬양의 찬송가를 불렀다.<sup>8</sup>

결국 이 새로운 회원들이 사는 마을에도 지부가 조직되었으며

그들도 집회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마을까지 닿는 도로가 전혀 없었으므로, 교회가 세워지는 언덕까지의 마지막 2킬로미터에서는 회원들이 모든 건축 자재를 직접 날랐다.

선교사인 바이런 제이 길버트 장로는 1992년에 침례 받게 된 여덟 명을 가르치고 접견하기 위해 아내 엠마와 함께 나이로비에서 출루까지 갔으나, 그곳에는 75명이 토론을 하러 와 있었다고 말했다. 모임을 갖는 동안 그들은 성찬기를 세 번이나 다시 채워야 했다.<sup>9</sup> 출루에서 1년 이상 봉사한 다른 선교사인 린다 레아비트 자매는, 그곳에는 교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선교사와 토론을 하려면 3개월을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그 3개월 동안 그들은 모두 교회 모임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십일조의 법에 따라 생활하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며 금식했다.<sup>10</sup>

가능한 한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했던 카수 지부장과, 출루 교회 다른 지도자들의 자세는 이곳 교회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브라운 부장이 모든 신권 지도자들에게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지도자 모임에 참석하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먼 거리와 여행 경비로 인해 출루에서

는 사람들이 오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11명의 형제가 아침 일찍 모임에 도착했다. 그들은 자정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기 위해 20킬로미터를 걸었으며 밤새도록 여행했다. 그들은 그날 있었던 지도자 모임에 참석했는데 일부에게는 통역이 필요하기도 했다. 그들은 그날 밤을 교회 회원들의 집에서 보냈고,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다음날 다시 출루로 돌아갔다.

#### 농작물과 개종자들

바로 이러한 것이 출루 교회의 역사이다. 회원들은 크게 축복을 받았다. 1992년 7월 나의 방문 기간이 끝나 갈 무렵, 나는 그러한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할 때 카수 지부장은 함께 나이로비로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브라운 부장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지만 걱정거리가 있는 듯한 기미는 전혀 비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날 브라운 부장은 나에게 출루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있어 일부 사람들은 거의 기아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몹시 놀랐다. 회원 가운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또는 일요일 간증 시간에 불평을 하지 않았으며,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브라운 부장은 즉시 조치를 취했다. 그는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역 회장단의 승인을 얻어 옥수수, 쌀, 콩 등을 출루로 보냈다. 선교사 부부인 테드 맥닐 장로와 재클린 맥닐 자매가 어려운 여행을 했다. 무거운 짐을 실은 큰 트럭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여덟 명의 자매가 트럭 앞에 놓인 길 위의 큰 용암덩이 돌들을 굴러 냈다. 식량이 도착하자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다. 맥닐 자매는 이렇게 회상한다. “무엇인가를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그들은 이 식량이 그들의 생명을 구하리라는 것을 알았죠.”

카수 지부장은 가족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각 가정을 방문했다. 지부장은 아내와 함께 밤새도록 죽을 쑤어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허약해진 사람들에게 죽을 날라 주었다.



데이비드 엠 말루티는 출루에 있는 지부에 적대감을 갖고 있었으나 경전과 소책자,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간증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 그는 간증을 읽고 침례를 받았으며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맥닐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그곳에는 참으로 강한 영이 임재해 있었습니다. 카수 지부장 부부가 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앞으로 있을 비슷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교회는 출루에 있는 교회 소유의 땅에 가뭄에 강한 작물을 키우는 프로젝트를 시



출루 사람들은 교회가 마련해 준 물펌프에 대해 크게 감사했다.

작했다. 아이다호 출신의 농학자 조엘 케이 랜섬과 출루 지방부장단 제1보좌와 신권 지도자들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이 일에 도움을 준 사람들은 자기 가족의 경작지와 씨앗을 받았다. 근 2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40명의

교회 회원과 60명의 비회원은 1992년 10월 22일에 농작물을 심었다. 그런 뒤 그들은 비를 기다리며 특별 금식을 하고 하늘의 문이라는 교회 비디오를 보았다. 씨앗을 뿌린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비가 내렸다. 농작물이 자랐고 그와 함께 사람들의 신앙도 자랐다. 농작물의 수확과 개종자의 수확 모두가 풍성했다.

출루에 뿌려지고 양육된 복음의 씨앗은 수년 동안 튼튼하게 자랐으며 계속해서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중반에 케냐 정부가 외국 전임 선교사들의 비자 발급을 거절했을 때 출루의 젊은이들은 그 수요를 채웠다. 1998년에 데이비드 바우처는 케냐 나이로비 선교부장 직에서 해임될 때, 출루

지부의 회원 수가 케냐 전체 교회 회원 수의 15퍼센트에 지나지 않지만, 케냐에서 봉사하는 케냐 출신 선교사의 반 이상을 배출했다고 말했다.<sup>11</sup>

힝클리 대관장의 다음 말씀은 그에 대한 적절한 찬사가 될 것이다. “개척자들은 … 교회에 들어오는 개종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그 개개인에게 힘든 일입니다. 불가피한 희생이 요구됩니다. 박해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대가를 치르며, 그 대가는 실로 150년 전에 평원을 횡단했던 사람들이 치른 대가에 필적합니다.”<sup>12</sup> □

이 데일 레바론은 유타 오렘 트림뷰 스테이크 트림뷰 제2와드 회원이다.

## 주

1. Gerry Avant and John L. Hart, “Many Are Still Blazing Gospel Trails,” 1993년 7월 24일자 *처치 뉴스* 6쪽에서 인용함.
2. 교리와 성약 선언문 2.
3. 1853년에서 1978년까지 125년 동안 아프리카의 교회 회원 수는 7,712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해마다 평균 61.7명의 침례가 있었다는 뜻이며, 남 아프리카에는 총 한 개의 스테이크와 한 개의 선교부가 생겼다. 1978년부터 1998년까지 교회 회원 수는 112,344명이 증가하여, 해마다 평균 5,617명의 증가를 보였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48개 국가에는 총 120,056명의 회원과 25개의 스테이크, 12개의 선교부가 있다. 지난 20년 간 아프리카에서 매년 증가한 회원 수는 그 이전 평균 증가 수의 91배가 넘는다.
4. *처치 뉴스*, 1993년 7월 24일, 6쪽에서 인용함.
5. 케냐 출루에 있는 줄리어스 카울리 카수와의 인터뷰, 1992년 7월 5일.
6. 1991년 10월 24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가 드린 헌납 기도, 사본 저자 소유.
7. 1992년 7월 8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래리와 엘리스 브라운과의 인터뷰.
8. 1993년 6월 바이런 제이와 엠마 레이 길버트와의 인터뷰.
9. 1993년 6월 바이런 제이와 엠마 레이 길버트와의 인터뷰.
10. 케냐에서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 봉사한 린다 레아비트의 개인 역사, 사본 저자 소유.
11. 1999년 8월 24일, 데이비드 바우처와의 전화 인터뷰.
12. *처치 뉴스*, 1993년 7월 24일자 6쪽에서 인용함.



# “영이 대신 말했습니다”

질 필시퍼 존스

사진 산하 스페르 번더슨

**제** 아들 가운데 한 명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가족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어떤 종류의 간섭에도 화를 냈습니다. 의무적으로 교회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복음에 대한 아무런 열의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선교 사업을 준비하지 않고, 차를 살 비용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일요일, 그는 평소와 다르게 성찬식을 마친 후 교회를 떠나는 대신 주일학교에 참석했습니다. 그날의 공과 주제는 선교 사업이었습니다.

선교사 환송 모임에서  
제 아들은 주일학교  
교사가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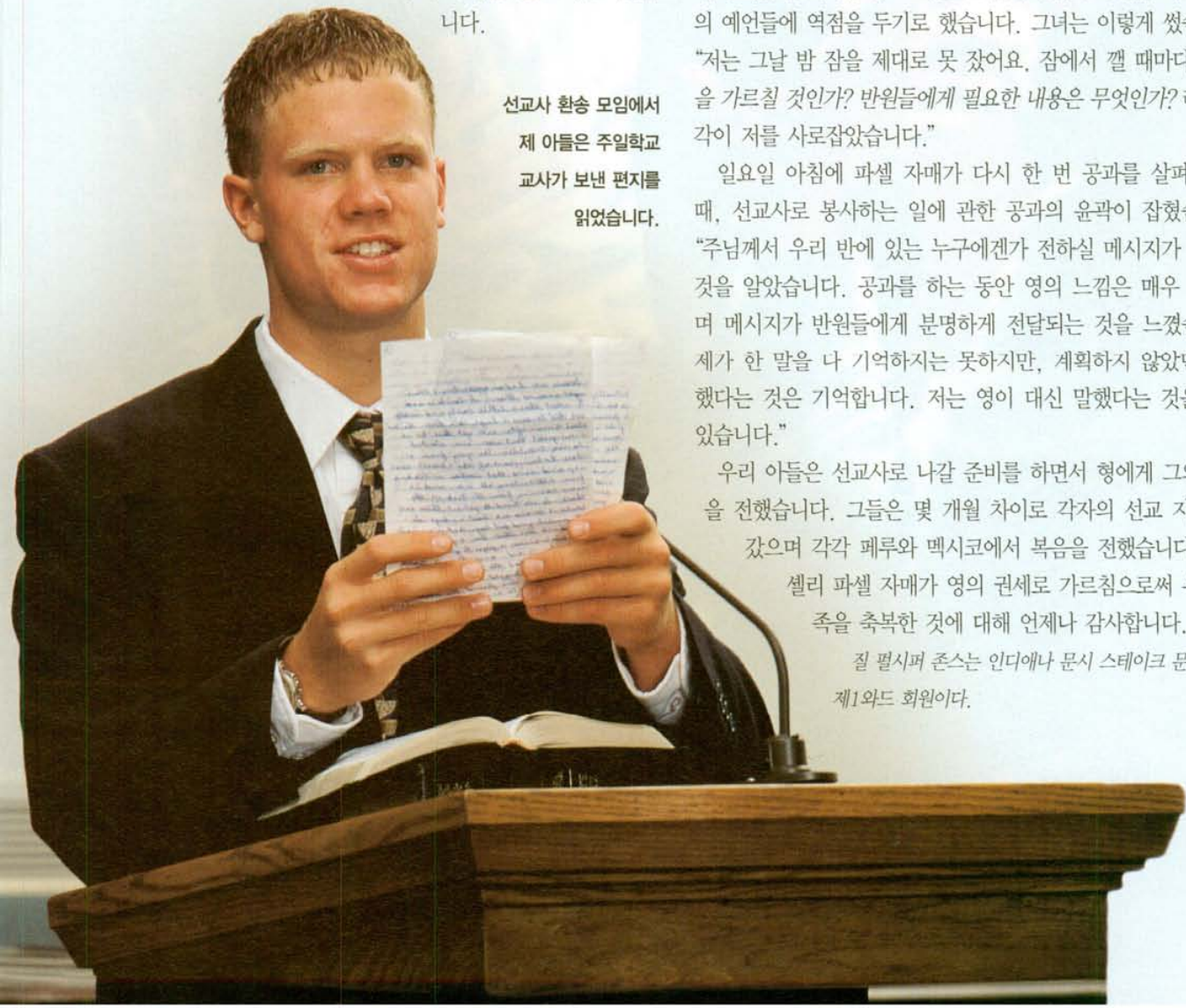
아들은 우리에게 그 공과 시간만큼 강하게 성신을 느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일학교가 끝난 즉시 그는 감독에게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약 1년 후 있었던 환송 모임에서, 그는 주일학교 교사인 셸리 파셀이 그가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서 그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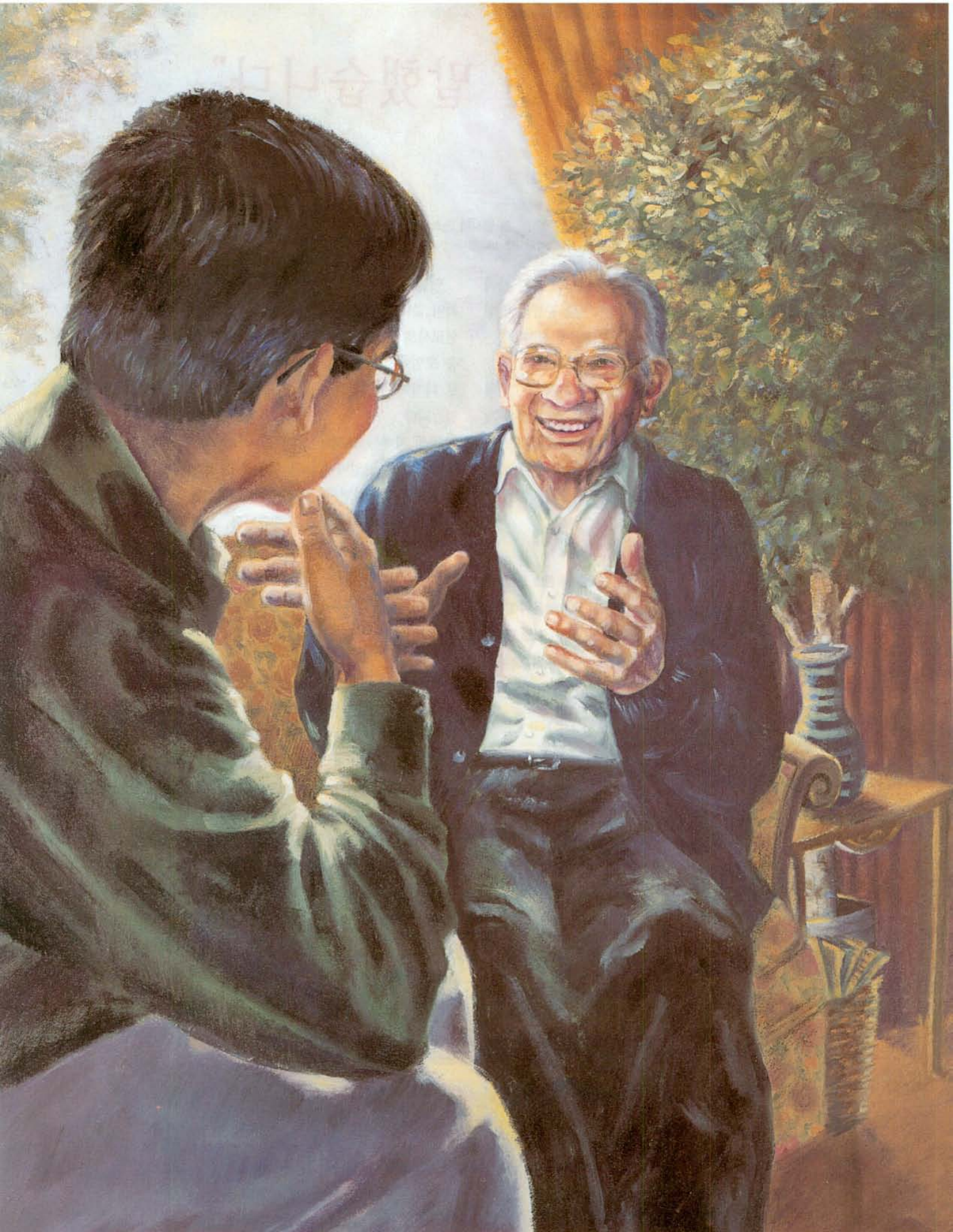
파셀 자매는 교리와 성약 71~75편과 77편에 관한 공과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설명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공과를 준비하면서, 그녀는 77편에 설명되어 있는 계시의 책의 예언들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잠에서 깰 때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반원들에게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파셀 자매가 다시 한 번 공과를 살펴보았을 때, 선교사로 봉사하는 일에 관한 공과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반에 있는 누구에게나 전하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과를 하는 동안 영의 느낌은 매우 강했으며 메시지가 반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 말을 나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계획하지 않았던 말을 했다는 것은 기억합니다. 저는 영이 대신 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면서 형에게 그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몇 개월 차이로 각자의 선교 지역으로 갔으며 각각 페루와 멕시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셸리 파셀 자매가 영의 권세로 가르침으로써 우리 가족을 축복한 것에 대해 언제나 감사합니다. □

질 필시퍼 존스는 인디애나 문시 스테이크 문시 제1와드 회원이다.





中華書局

# “모든 좋은 기회”

# 새

로운 세기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간의 흐름에 대해 상고해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후회와 기대가 뒤섞인 불안한 느낌으로 과거를 미래에 투영시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는 있지만 미래에 대해 많은 일을 할 수 있

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처해야 할 것은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합니다.”라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말씀했습니다.(이번 호, 8쪽) 다음 경험들은 이러한 권고가 주는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이들 교회 회원들은 용기와 신앙을 가지고, 과거의 약점과 실

수로부터 무언가 훌륭한 것을 이루어 내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 현재의 기회를 활용하여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냈습니다.



## 나의 스승

호아킨 페노야르 바타에르

**홀** 리오 마르티네스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스물 네 살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인생의 목적을 설명해 주고, 내 영혼이 허무를 느끼는 이유를 이해하게 도와

시간이 지나면서 홀리오에게 생기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새롭게 빛났고 더욱 친절해졌으며, 비판하는 일이 적어지고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줄 사람을 만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87세 된 홀리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남다른 건강을 누렸습니다. 자연을 사랑했고 항상 훌륭한 유머를 지녔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며 많은 여름날 오후를 보냈고, 나는 그와 그의 사상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실천하는 한 철학자는 나의 스승이 되었

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2년 반쯤 지난 어느 날 홀리오는 자신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입교하기 위해 침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것처럼 현명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를 존경했으므로 나는 그가 내린 선택도 존중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주 만나오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는 대화의 주제를 다른 것으로 돌렸습니다.

심화: 엘리자 리스, 그림: 라인리히 호프만, 그리스도와 젊은 부자 권위의 일부

# “회고음동크모”

시간이 지니면서 홀리오에게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새롭게 빛났고 더욱 친절해졌으며, 비판하는 일이 적어지고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나는 무엇이 그를 변화시키는지 알 수 없었으며, 이미 우리가 가져 온 훌륭한 우정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 더 알아보려는 그의 권유에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주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지만, 들을 귀가 있고 마음을 열었을 때에만 우리는 들을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나를 부르셨지만 나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8년 8월 20일에 홀리오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주님의 선교사인 마르티네스 장로, 보일 장로, 그리고 윈와드 장로를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나를 부르는 음성을 깨달았습니다. 영이 그러한 강한 증거를 전해 주었으며, 나의 마음은 부드럽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나는 몇 번이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세주는 어떻게 우리를 그토록 깊이 사랑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러한 일을 하러 오셨을까?

9일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친구 홀리오 덕분에 지금은 우리에게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교회에서 찾게 된 우정을 압니다. 홀리오는 내게 할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영원한 진리를 찾았음을 알고 기

뻐합니다.

호아킨 페노아르 바타에르는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부, 간디아 지부의 회원이다.

## 숨겨진 책

루스 도르셋

1973년 여름, 나는 유럽에 가서 가족 역사 기록을 탐구하라는 알 수 없는 충동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두 손녀는 독일 카펠른에 있는 커다란 낡은 건물에서 기록들을 복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었으므로 제한된 시간 동안, 조부인 톰슨가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찾았던 건물에는 176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카펠른의 민간 기록과 종교 기록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독일어를 할 수 없었으나 다행히 관리자가 영어를 할 수 있어서, 기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독일어 용어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손녀들은 우리의 계획대로 영국으로 떠나기 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함께 일했습니다. 아직은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부쪽 가계를 조사해야 한다는 충동이 이제 참된 영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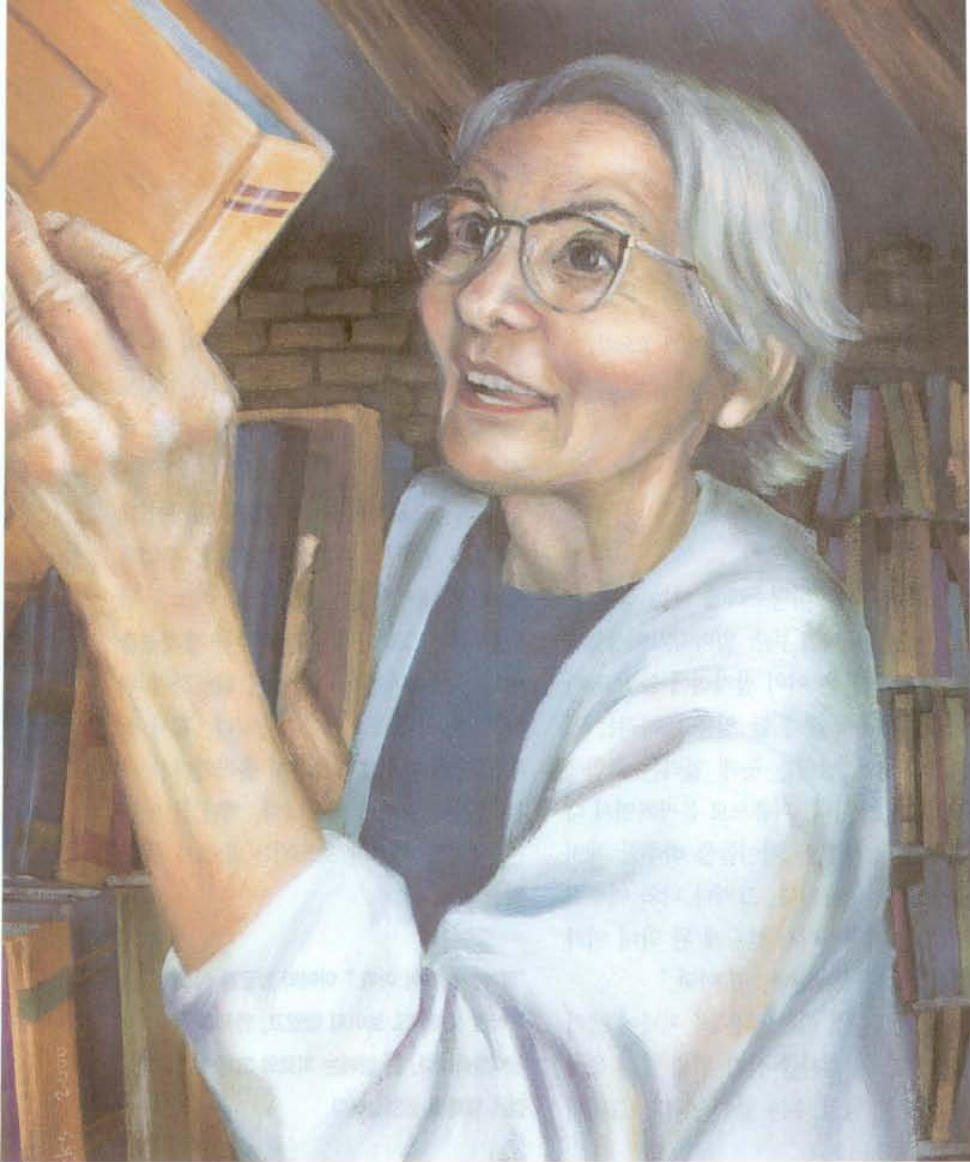
카펠른 보관소의 직원들은 오래지 않아 그곳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들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문 앞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으며 점심도 건너뛰었습니다. 그들은 관대했습니다. 점심 시간 동안 문을 닫

을 때에도 내가 보관소 안에 머물러 있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한 시간씩 일찍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없었던 나로서는 말할 수 없이 감사했습니다.

1764년까지의 기록에서 출생, 결혼 및 매장에 관한 탐구를 마치고 난 후에,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1764년 이전의 기록들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대체 어디에... 그때, “너는 다 살펴보지 않았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놀란 채, 나는 건물 기록 보관실로 갔습니다. “어디를 안 찾아 봤을까?”

선반 꼭대기에 있는 몇 권의 큰 책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살펴본 적이 않은 저 큰 책에 분명 기록이 있을 거야. 그 책들을 꺼내기 위해서는 선반의 아래 단을 밟고 올라서야 했습니다. 큰 책을 꺼내기 위해 오른손을 뻗으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왼손으로 선반의 후미진 곳을 잡았는데 무언인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꼭대기에서 큰 책을 꺼낸 후에 나는 왼손에 잡혔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 보았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작은 책이었습니다. 표지는 선반과 같은 색깔로 눈에 잘 띄지 않는 황갈색이었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에 오래된 고딕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책장을 뒤로 넘기자 그곳엔 좀더 현대적인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조사를 마친 1765년 기록에 있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그 부모



선반 꼭대기에서 큰 책을 꺼낸 후에 나는 왼손에 잡혔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작은 책이었습니다.

에게서 1763년에 태어난 큰 아이의 기록이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점심 식사에서 돌아오자마자 나는 그 책을 문서 보관자에게 가져갔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뒤, 그는 그 책이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던 책, 즉 160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카펠른의 세레명들이 적힌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은 카펠른 기록입니다만, 전에 여기서 이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직원과 상의하여 그 책을 복사했습니다. 내가 받은 101장의 종이에 나의 많은 가족들의 이름이 있었으며 나중에 성전 사업을 위해 그 이름들을 제출했습니다. 그 책의 복사본과 필름은 이제 교회 가족 역사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진지한 마음으로 조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합니다. 이번 경험으로 나는 경전에 나와 있는 지혜를 확인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

루스 도르세트는 유타 세인트 조지 블루밍턴 힐스 스테이크 블루밍턴 제2와드 회원이다.

##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벤티나 베아트리스 살바티에라 데 산체스

나는 생활에 있어서 경전의 중요성에 관해 성찬식에서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약간 두렵고 부끄럽기는 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 임무 지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경전에 대해 강한 간증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 주제에 관해 말하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예언자가 우리에게 요청한 대로 매일 경전을 공부해 왔습니다. 경전 공부를 할 때면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나는 표준 경전에서 읽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 일지도 기록합니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내게 가르쳐 주었으며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매일 경험한 일들과 나의 발전 상황들을 적습니다. 말씀을 하라는 임무 지명을 받아들일 때, 말씀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일지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긴장이 되었으므로 나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고, 인도를 간구했습니다. 나의 말이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드디어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연단으로 나가면서 나는 약간 떨었습니다. 말씀을 하는 동안, 회원들이 매우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전에 그

렇게 침착해 본 적이 없으며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해 본 적도 없습니다. 뜨겁고(교리와 성약 9:8 참조) 아름다운 영이 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말씀을 한 것은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으로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후에, 이 경험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부지런히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영의 축복을 받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으므로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교리와 성약 38:30 참조)

또한 우리가 말씀과 같이 작아 보이는 어떤 일을 자신감 있게 준비한다면, 주님이 도우시리라는 것을 알고 안심하여 더 큰일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티나 베아트리스 살바티에라 데 산체스는

아르헨티나 고도이 크루스 스테이크 고도이 크루스 센트로 와드 회원이다.

## 나머지는 주님께

론디 에스 루돌프

“엄마!”하는 비명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지?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나는 막 저녁에 해야 할 일들을 하려는 참이었습니다. 남편은 늦게 열리는 모임에 가고 없었습니다. 이층으로 올라가면서 나는 싸움을 벌였을 아이들을 마주할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마주친 것은 눈 가장자리가 빨갛게 된 막내 미카 옐라였습니다. “엄마, 귀 아파.”

오 제발, 왜 이런 일은 꼭 저녁에 생기는 거지? 귀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 응급실 비용을 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모든 민간 요법을 다 써 본 후 나는 딸아이를 침대에 눕였습니다. “자도록 해 봐. 아침에 병원문을 여는 대로 의사를 부를게.”

아래층으로 다시 내려왔으나 걱정이 돼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식탁을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행주를 팽개쳤습니다. 나는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이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혹시 잠이 들었을까봐 조용조용히 올라가다가 나는 중간에 멈추어 섰습니다. 계단 끝 열린 문 사이로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귀 많이 아파.” 아이의 얼굴엔 평소에 보이던 보조개도 보이지 않았고,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피로와 고통으로 인해 검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이가 고통스러워 하는데 무력하게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서 나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간청했습니다. 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후에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 심호흡을 하고 난 뒤 나머지 계단을 올라갔고, 나는 딸아이 곁에 앉아서 아이의 젖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 귀 많이 아파.” 아이의 얼굴엔 평소에 보이던 보조개도 보이지 않았고,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피로와 고통으로 인해 검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과보호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극성스런 엄마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를 부를게. 알았지?”

미카엘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에게 미카엘라를 축복해 줄 수 있냐고 묻자 그는 “물론이죠.”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도착한 그는, 밤늦게 차를 모는 일이 마치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인 양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그가 축복을 하는 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희망으로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떠나는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미카엘라를 다시 재웠습니다. 아이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딸아이는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나는 소아과 의사에게 전화하는 일을 그만둘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날 오전, 의사가 진찰하는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기구로 미카엘라의 귀를 들여다보고 말했습니다. “밤에 잠을 별로 못 잤겠구나. 그렇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잤는걸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의사의 깜짝 놀라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나는 그때 우리에게 작은 기적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진 것도 아니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도 아니었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어린 소녀가 고통 없이 평화로운 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충분했습니다.

*룬디 에스 쿠돌프는 콜로라도 보울더 스테이크 루이스빌 제1와드 회원이다.*

## 결혼 반지가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케 테 쿠앙

**장**차 아내가 될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결합을 상징할 결혼 반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반지도 마음에 들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정의만 반지를 끼기로 했습니다. 이 반지는 우리에게 항상 의로운 일을 선택하고 가족을 의롭게 양육할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결혼을 가까이 앞둔 어느 날, 나는 반지의 광채가 희미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광을 낼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들은 치약, 고운 천, 기름 같은 것으로 광을 내 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방법을 다 써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광채가 희미해진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반지를 빛나게 하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자 생활은 점점 복잡해져서 닮았습니다. 나는 직장파 교회 일로 너무 바빠서 아내의 집에서 혼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서서히 가정에서 즐거운 느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와, 우리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우리는 기도로 인도를 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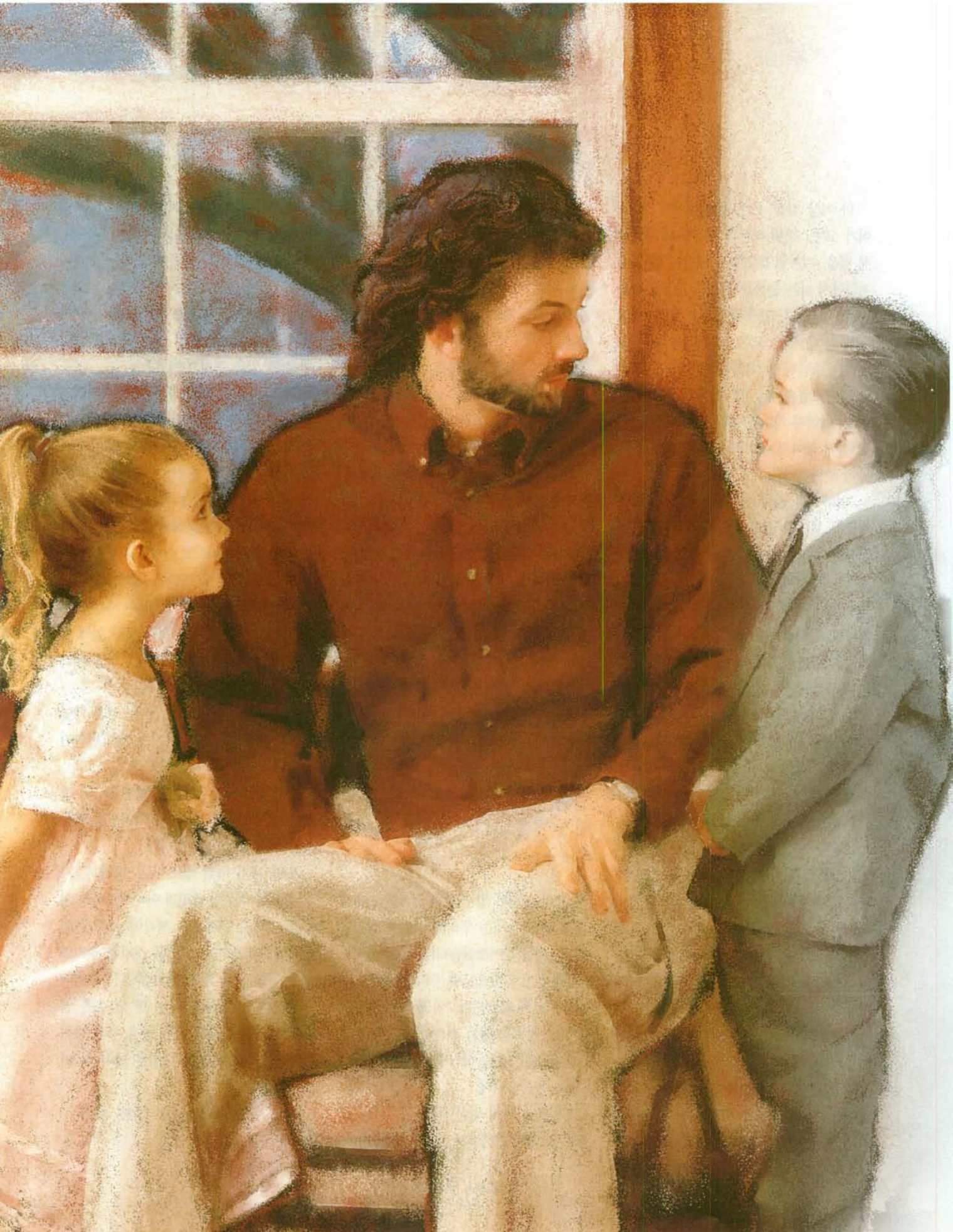
시간이 흘러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아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감사했고, 손으로 기저귀를 빼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기저귀를 빨기 시작한 후 몇 주가 지났을 때, 놀랍게도 결혼 반지는 다시 반짝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말해 준 어떤 방법으로도 광이 나지 않던 반지가 매일 기저귀를 빼는 동안 빛을 되찾은 것입니다.

또한 내가 바깥 일로 너무 바빠서, 가장 중요한 의무인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 반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 빛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내 반지의 의미대로, 다시 한 번 옳은 일을 선택하여 가족을 가장 높은 우선 순위에 두자, 반지와 결혼 생활은 다시 한 번 반짝였습니다. □

*케 테 쿠앙은 타이완 핑퐁 지방부, 핑퐁 지부의 회원이다.*





# 방문자

우리 반을 방문한 마이크는  
놀라운 질문에 마주했습니다.

켄 메릴

**선** 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감독님은 나에게 햇님반을 가르치라는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런 단순한 임무를 맡아 어린이들에게 봉사하면서야 비로소 나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인내를 들여서, 나는 그 일곱 명의 어린이들을 자리에 앉힌 채로 어떻게 간단한 공과에 귀기울일 수 있게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나는 마이크에게 교회에 와서 내가 가르치는 반에 참석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마이크는 내 또래였으나 12살이 되었을 때 교회에 나오는 일을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그 후로 내가 집사 정원회 회장, 교사 정원회 회장, 그리고 제사 정원회에서 감독의 제1보조로 봉사하는 동안 계속 친구로 지내 왔습니다. 그는 수차례 우정 증진 토론의 대상이 되었으며 종종 내 기도의 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마이크가 활동에 참석하라는 내 권유를 받아들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면 나는 늘 놀랐으며, 그래서 계속 그를 초대했습니다.

언제 그를 초등학교 반에 초대했는지는 기억 나지 않지만 어느 날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 무렵, 마이크는 검은 머리를 길게 길렀으며 수염도 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친구 마이크를 소개합니다.”하고 공과를 시작하면서 말했습니다. “그 분은 오늘 우리 반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마이크는 내 옆에 마련된 앞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린이들은 반원형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은 마이크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공과를 시작한 지 5, 6분쯤 되었을 때 한 어린 소년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앞으로 걸어 나와 내 친구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서 있더니 마이크의 무릎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나는 공과를 계속 하면서 그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이는 마이크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마이크는 몹시 불편해 보였지만 공과를 방해하거나 아이를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린이들이 한동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한 어린 여자 아이가 자리에서 내려와 마이크에게 다

가갔습니다. 나는 오로지 마이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으므로 두 어린이에게 자리에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아이는 마이크의 무릎에 손을 올려놓고 서서는 그의 얼굴을 바라 보았습니다.

드디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이크의 무릎에 있던 아이가 두 손을 뺐더니 마이크의 얼굴을 돌려서 자기의 얼굴과 정면으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나는 공과를 중단하고 어떤 일이 전개될지 지켜보았습니다.

순진한 어린이는 마이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씨가 예수님이예요?”

마이크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어린이들의 얼굴을 훑듯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질문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는, 나 좀 도와줘. 뭐라고 해야 하니?라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이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의 동생이야.”

마이크는 더욱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이크의 무릎에 있던 어린이가 주저하지 않고 팔을 뻗어 마이크의 목을 감싸 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나머지 어린이들도 미소를 지으며 궁금증이 풀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크는 이 어린 햇님반 어린이들에게서 느낀 사랑에 대한 답례로 눈물 어린 눈을 깜빡였습니다. 공과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가장 훌륭한 공과를 가르친 교사는 세 살짜리 어린이였습니다.

마이크는 일 년이 넘도록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나의 귀환을 몇 달 앞두고 그가 선교사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기쁨으로 전율했습니다. 그 햇님반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면 나는 마태복음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

켄 메릴은 유타 주 오렘 레이크뷰 스테이크 레이크뷰 제6와드 회원이다.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 리아호나

## 2001년 11월호

### 활용하기

#### 공과를 위한 제언

■ “외설물—치명적인 매개체”, 2쪽.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외설물과 의 전투 계획에서 제시한 세 단계에 대해 토론한다. 이런 악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 “명예롭게 귀환하라”, 10쪽.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조종사들이 무사히 귀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도구들에 대해 말했다. 우리가 하늘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영적인 도구들과 이 도구들을 비교한다.

■ “청소년에게 보내는 인사”, 25쪽. 브리감 영 대관장이 절제회를 조직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날의 세상에 있는 어떤 영향을 피해야 하는가?

■ “‘선생님이 일어나도 된다고 하셨어?’, 친14쪽. 순종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해 주며 영생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안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몇 가지 계명들에 대해 토론한다.

사진 삽화: 크레이그 다이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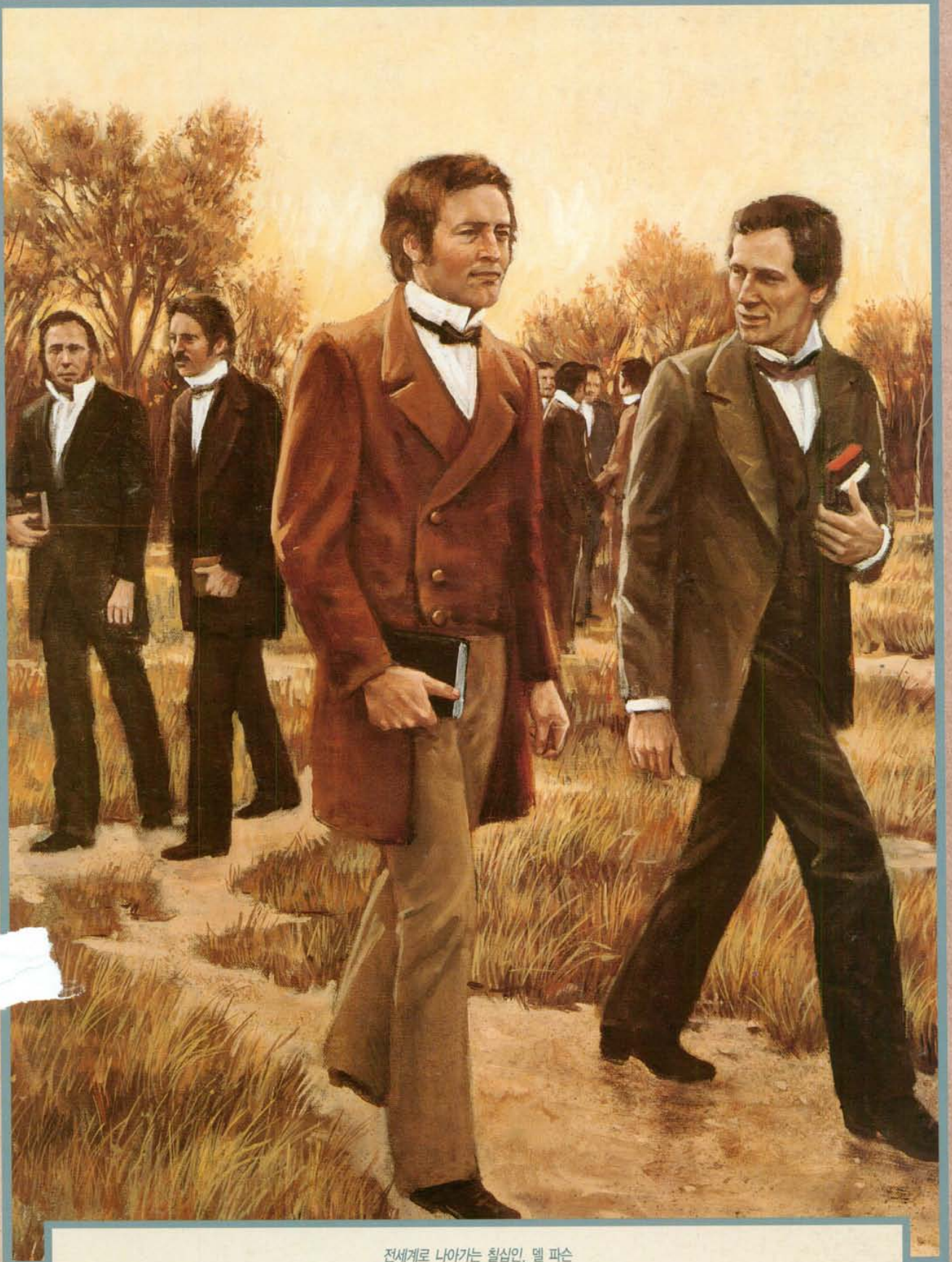
#### 이번 호의 주제들

- 가르침 ..... 39, 46, 48
- 가정 복음 교육 ..... 6, 28
- 가정의 밤 ..... 48
- 가족 관계 ..... 40, 친4
- 가족 역사 ..... 40
- 개종 ..... 32, 40
- 개척자 ..... 32
- 경전 공부 ..... 친2
- 공경 ..... 10
- 교회사 ..... 25, 친2
- 방문 교육 ..... 24
- 범세계적인 교회 ..... 32, 친4
- 병 고침 ..... 40
- 선교 사업 ..... 39
- 성신 ..... 39, 친14
- 성약 ..... 10, 16
- 성전과 성전 사업 ..... 8
- 순수 ..... 2, 7
- 순종 ..... 7, 10, 친7, 친12, 친14
- 신앙 ..... 32
- 신약 성서 이야기 ..... 친8, 친10
- 예수 그리스도 ..... 46, 친8, 친10
- 예언자 ..... 8, 25, 친7, 친12
- 용기 ..... 28, 40
- 유혹 ..... 7
- 외설물 ..... 2
- 음악 ..... 24
- 의식 ..... 10, 16
- 지혜의 말씀 ..... 31
- 청소년 ..... 25
- 초등학교 ..... 친12
- 표준 ..... 31
- 활동 촉진 ..... 28

#### 예언자 따르기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께서는 청소년들에게 감사하고, 지식을 쌓으며, 깨끗하고, 진실하며, 겸손하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41쪽) 그 분의 권고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언자를 따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경험을 다음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이메일 주소: CUR-Liahona-IMag@ldschurch.org 여러분의 성명, 나이, 주소, 전화 번호, 그리고 와드와 스테이크 (또는 지부와 지방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로 나아가는 칠십인, 델 파슨

"칠십인도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며 이방인과 온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한 증인이 되니라"  
(교리와 성약 107:25)



“**성**스러운 의식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우리의 구원과 승영에 필수적입니다. 복음의 성스러운 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왕국에 대해 배우고, 기록하고 영원한 성약을 맺으며, 우리 삶에 임하는 신성한 권세를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게 하여 그 안에서 온전해지게 합니다.”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의식과 성약”, 16쪽 참조